

# 리아호나



미래 세대를 위한  
충실함의 유산, 44쪽

100명과 복음을 나누겠다는  
우리의 목표, 18쪽

지진, 불, 바람보다 더 강력한,  
20쪽

개척자 : 어떻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24쪽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복음의 길을  
닦았거나, 닦고 계시는  
전 세계 후기 성도  
개척자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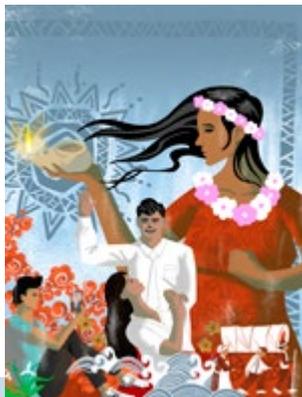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에서, 24쪽



특집 기사

**12** 성도들: 교회 이야기 — 제5장: 모든 것을 잃다

마틴 해리스의 도움으로 금판을 번역하기 시작한 후 조셉은 원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에 맞닥뜨리게 된다.



표지  
삽화: 데이비드 그린.

**18** 성공적으로 복음 나누기

네버 치쿠웅구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려는 목표를 충실히 세울 때, 우리는 기적으로 축복받게 된다.

**20** 속삭임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호르헤 에프 세바요스 장로 늘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어야 한다.

**24**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은 시온에 모이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

**30** 홀로 신앙을 지킴

라이언 더블유 잘츠기버 교회 건물도 와드도 없었지만, 이 성도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36** 물몬경은 삶을 바꾸어 줍니다

물몬경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는지에 관한 개종자들의 간증.

교회 본부 기사

**4** 신앙의 초상

빅터 바르빙야그라

**6** 성역의 원리: 동정의 손길을 내밀라

**10** 연단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였는지 기억하십시오

세리 엘 듀

**40** 후기 성도의 소리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물몬경은 풍요로움을 줍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44

- 44 세 명의 현대 개척자 이야기  
세라 키넨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초기의 개척자들이 보인 것과 같은 용기와 신앙을 필요로 한다.
- 48 단절된 느낌이 드는가? 속도를 늦춰보자  
샬럿 라카발  
빠르고 산만한 생활 방식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 50 어려운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 세 가지 유용한 원리  
질문을 하는 것은 간증을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응답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신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준다.
- 54 봉사하기 힘들었을 때  
라이카 티 발데즈  
내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힘들었다.
- 56 말씀을 잘 하기 위한 7가지 조언  
새라 헨스  
교회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을 만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 다음의 제언들을 활용해 보자.
- 58 삶을 위한 준비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 60 안식일병  
앨리사 닐슨  
나는 안식일을 싫어하는 대신 고대하게 되었다.
- 62 포스터: 관계도
- 63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쿠엔틴 엘 룩 장로



68

- 64 이사벨의 여행  
제시카 라슨  
이사벨의 가족은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하더라도 성전에 가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것을 알았어요.
- 66 훌륭하신 조부모님  
제나 코포드  
앤드루는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오는 날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 68 드디어 영원한 가족이 되었어요  
제인 맥브라이드  
미아는 조이네 집에 있을 때 받는 따뜻한 느낌이 좋았어요.
- 70 빛을 비추라: 친구와 선교사
- 72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73 물문경 독서 모임: 힐라맨서 5장 12절
- 74 우리들 이야기
- 75 구약전서 영웅 카드
- 76 경전 이야기: 한나와 사무엘  
킴 웹 리드
- 79 색칠하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59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헬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드러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렌드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보니 에이치 코든,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에드워드 듀브, 쉘런 유뱅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프란시카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닉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로리 플라,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켈슨,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나, 민디 셸루, 머리아 윌슨

편집 인턴: 리아 바턴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밴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너호스트

디자인 인턴: 시오네 이누키하야마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글렌 에더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데렉 리차드슨

사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버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28호, 제55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7월 1일(일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셜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ne 2018 Vol. 42 No. 7.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ids.org.(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인터넷 활용하기



liahona.li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i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아이콘: GETTY IMAGES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62, 64, 66, 68
- 사랑, 6
- 조셉 스미스, 12
- 개중, 18, 36, 42, 44
- 선교 사업, 18, 70
- 진리, 50
- 개혁자, 24, 30, 44
- 성신, 20, 68
- 총성심, 30, 75
- 경전 공부, 48, 50
- 성전, 58, 62, 63, 64, 74
- 침례, 74
- 교회 역사, 12
- 신앙, 30, 40, 43
- 하나님 아버지, 20, 48
- 기도, 20, 48, 50, 76
- 안식일, 56, 60
- 행복, 4
- 나누기, 79
- 역경, 24, 43
- 회개, 63
- 모범, 40, 41, 70
- 예수 그리스도, 60, 72
- 희생, 44, 64
- 물론경, 12, 36, 73, 80
- 우정, 68, 70, 75
- 봉사, 6, 54
- 자신감, 10





빅터는 칠삭둥이로 태어났다. 그 결과, 그는 몇 가지 장애를 안게 되었고, 일곱 살까지는 걷지도 못했다. 그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빅터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빅터는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보인다.

레슬리 닐슨, 사진 작가

## 빅터 바르빙야그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물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것은 아니다. 비록 그 문제를 100퍼센트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가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누구이든, 이생을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두셨다.

교회가 있기에 나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안다. 하나님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행복은 신앙을 지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복음대로 생활할 때 온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 추가 정보

liahona.lds.org에서 빅터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더 알아본다.

[https://www.lds.org/topics?lang=kor\[복음 주제\]의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데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https://www.lds.org/topics?lang=kor[복음 주제]의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데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

# 성역의 원리 동정심의 손길을 내밀라

구주께서 보이신 동정심의 모범을 따를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동**정심이란 다른 사람의 곤경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가볍게 해 주거나 해소해 주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는 것이다. 구주를 따르겠다는 성약은 “서로의 짐을 지[겠다]”는 동정심의 성약이다.(모사이야서 18:8)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임무는 주님의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 기회, 즉 “궁휼히 여[김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기회이다.(유다서 1:22) 주께서는 “서로 인애와 궁휼을 베풀[라]”라고 명하셨다.(스가랴 7:9)

## 구주의 동정심

동정심은 구주께서 베푸신 성역의 동력이다.(본 기사 하단의 “동정심 많으신 구주” 참조)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대해 동정심을 지니셨기에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과 소망을 파악하시고,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르칠 수 있으셨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고통 너머로 들어 올리기를 원하셨기에 동정심을 보이는 절정의 행위, 즉 인류의 죄와 고통을 위한 속죄를 치르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반응하는 능력을 지니셨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이 능력을 얻고자 노력할 수 있다.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영감을 받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맺은 동정심의 성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동정심을 갖기를 바라신다.(고린도전서 12:25~27 참조)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궁핍한 자에 대한 동정심을 키우고 이를



**성역의 원리**는 메시지를 나누는 법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알게 될 때, 성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관심과 동정심에 더하여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나타내 보여야 한다.(교리와 성약 52:40)

우리는 침례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기꺼이 동정심을 발휘하겠다고 증거한다. 제일회장단의 제2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성신의 은사라고 가르쳤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약의 회원입니다. ...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슬픔과 난관의 짐을 지고 힘겹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위안을 주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 주는 일을 도울 힘을 받았습시다.”<sup>1</sup>

예를 들어 한 러시아 자매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일 년 이상을 교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 지부의 자매가 동정심을 가지고 다가가 매주 일요일 전화를 걸어서 말씀과 공과, 선교사 부름, 새로 태어난 아기 등 지부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집에 있어만 했던 가정 형편이 해결되었을 때, 그 자매는 친구가 매주 전화를 걸어 준 덕분에 자신이 여전히 지부의 일원이라고 느꼈다. ■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보혜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8쪽.

### 동정심 많으신 구주

다음 경전 구절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시며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분의 동정심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다. 마태복음 9:35~38; 14:14; 18:27, 33; 20:30~34; 마가복음 1:40~42; 5:19; 6:30~42; 9:22; 누가복음 7:13; 10:33; 15:20.



# 동정심을 키우기 위한 네 가지 제안

시련을 경험한 후에 동정심이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동정심을 키우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  
다음 네 가지 원리를 적용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 1. 기도

동정심을 갖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복리와 행복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18쪽; 또한 모로나이서 7:48 참조)

## 2. 실천

실천한다. 귀 기울여 듣고 이해심을 보임으로써 동정심을 보일 수 있다. 자신을 그들의 상황에 대입해 보고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본다. 상황과 시간이 적절하다면, 그들의 고통이나 고난, 혹은 괴로움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 3. 영의 인도

## 4. 우정

## 동정심

## 3. 영의 인도

친구가 된다. 동정심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과 같이 간단한 일일 수 있다.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운다.(“성역의 원리: 훌륭한 경청자가 하는 다섯 가지”, 리아호나, 2018년 6월호, 6~9쪽)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커질 것이며 사랑을 보일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더 수월해질 것이다.

## 영의 인도를 따른다.

영의 인도를 따른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스스로는 알아낼 수 없었을 방식으로 동정심을 보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실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낄 때, 망설이지 말고 이를 행동에 옮긴다.

#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였는지 기억하십시오

셰리 엘 듀

본 연재 기사는 *At the Pulpit: 185 Years of Discourses by Latter-day Saint Women*[연단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의 설교 185년](2017)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헌신적인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조명한다.

**최** 근 열여섯 살 된 조카 메건과 그녀의 친구 두 명이 저희 집에 하룻밤 자리 왔습니다. 그날 저녁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메건의 친구 중 한 명이 옛날에는 농장에서 자라는 게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 저는 아이들에게 “그 옛날에는” 제가 극도로 수줍음이 많았고 자신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메건이 물었습니다. 저는 짧고 간단하게 대답할까 하다가, 이 훌륭한 청년들에게는 좀 더 길게 설명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줍음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영적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고 나서야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런 질문들이 날아왔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께서 저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로부터 몇 시간 동안 경전을 찾아보며 영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 영혼 속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셨던 그 지식을 우리에게 얼마나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영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 성공과 행복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그 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란 우리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는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놀라운 목적의식이 생겨서 우리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리를 기억해 내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 두 자매에 대하여

셰리 린 듀는 1953년 미국 캔자스주

울리시스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다섯 자녀 중 장녀였고,

5학년을 마칠 무렵에는 가족

농장에서 트랙터를 몰았다. 일요일이면 할머니 모디 듀가 아침 일찍 그녀를 교회에 데리고 갔다. 교회는 임시로 빌린 건물을 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담배꽂초와 맥주 캔을 쓸어 내곤 했다. 작은 지부에 참석하다 보니 그녀에게는 말씀할 기회도 가르칠 기회도 많았다. 청년 때는 지부 반주자가 되었고, 16세엔 지부 초등회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두 자매는 1978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위를 받은 후, Bookcraft에서 편집 일을 맡게 되었다. 1988년 Deseret Book에 입사하여 2000년에 부사장이 되었다.

35세였던 두 자매는 바바라 더블유 와인더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을 때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이 되었고, 1997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메리 엘런 더블유 스무트 자매의 제2보좌로 부름받았을 때는 불과 43세였다.

두 자매는 2001년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라고 권고했다. 이 글은 그 말씀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즉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저 자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지금껏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숙고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셨다가, 더 많은 위험과 강한 적대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극히 파괴적인

영적 환경에서 그분께서 택하신 세대를 키워 내고 이끌 여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시온을 건설하리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 고결하고 위대한, 용감하고 단호한, 충실하고 두려움 없는, 바로 그런 여성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이해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자신감을 심어 주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이 오늘을 위해 선택받고 예비되었음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사명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독생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구주를 옹호하고, 그분의 포도원에서 씩씩하고 힘차게 봉사하면서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제 5 장

# 모든 것을 잃다

다음은 교회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의 제5장이다. 이 책은 14개 언어로 출판될 예정이며, 복음 자료실 앱의 Church History[교회사]와 온라인 [saints.lds.org/kor](https://saints.lds.org/kor)에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몇 개의 장은 제1권이 출간되는 올해 후반까지 리야호나에 연재될 예정이다. 이 장들은 복음 자료실 앱과 [saints.lds.org/kor](https://saints.lds.org/kor)에서 47개 언어로 볼 수 있다.

**조**셉이 금판을 집으로 가져오고 몇 주가 지날 때까지도 보물 수색꾼들은 여전히 판을 훔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조셉은 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벽난로 밑으로, 아버지의 상점 바닥 아래로, 또 곡식더미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가며 판을 숨겨야만 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은 집으로 찾아와서 기록을 보여 달라고 애원했다. 심지어 돈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셉은 예외 없이 거절했다. 그는 최선을 다한다면 판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판을 지켜 냈다.<sup>1</sup>

그런 소란 때문에, 조셉은 판을 들여다보거나 새로 가져온 우림과 둠뭉을 살펴볼 만한 여력이 없을 때가 많았다. 물론 해석기는 판을 번역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선견자의 돌로 고대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조셉에게는 상상도 못 해 본 일이었다. 번역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셉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sup>2</sup>

그렇게 조셉이 판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시기에, 마틴 해리스라는 팔마이라의 명망 있는 지주가 조셉의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틴은 조셉의 아버지뻘 나이로, 간혹 조셉이 일을 가기도 하는 농장의 주인이었다. 마틴도 금판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셉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 봐

달라고 부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sup>3</sup>

마틴이 찾아왔을 때, 조셉은 일을 나가고 집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다른 식구들에게 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조셉이 돌아오자 그를 붙잡고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조셉은 마틴에게 금판에 대해 알려 주고, 금판의 기록을 번역해서 출판하라는 모로나이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마틴이 말했다. “이것이 악마의 일이라면 나는 조금도 관여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주님의 일이라면, 마틴은 조셉이 그 책을 세상에 널리 알리도록 돕고 싶었다.

조셉은 마틴에게 판이 든 금고를 들어 보게 했다. 안에 묵직한 것이 든 것 같긴 했으나 그것이 금판이라고 마틴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조셉에게 말했다. “당신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도착한 마틴은 침실로 들어가 기도를 드렸다. 그는 조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때, 마틴은 자신의 영혼에 속삭이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금판을 주셨으며, 조셉이 그 기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4</sup>

1827년이 저물어 갈 무렵,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에머는 친정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결혼한 지 벌써 일 년이

다 되었지만, 에머의 부모는 여전히 마음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딸이 친정 가까운 곳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딸 내외를 하모니로 부르기로 했다. 자신의 부모 형제와 떨어져 지내야 할 것이 분명함에도, 조셉은 하루빨리 하모니로 가고 싶어 했다. 그는 판을 노리는 뉴욕의 사람들을 피해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겨 바라던 대로 편안하고 은밀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셉은 빚이 있었고, 이사할 돈도 없었다.<sup>5</sup>

조셉은 재정을 정리해 볼 요량으로, 또 빚진 돈을 일부 갚을 겸해서 마을로 나갔다. 상점에서 물건 값을 치르는 조셉에게 마틴 해리스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스미스 씨, 여기 오십 달러입니다. 주님의 일에 쓰십시오.”

조셉은 그 돈을 받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여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마틴은 사양했다.

그러고는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를 증인으로 세워 이 돈은 분명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로 주는 것임을 공언했다.<sup>6</sup>

그 덕분에 조셉은 곧 빚을 정리하고 짐을 꾸릴 수 있었다. 그는 콩이 든 통 속에 금판을 넣어 마차에 실은 뒤 에머와 함께 하모니로 향했다.<sup>7</sup>

약 일주일 후, 이 부부는 에머의 부모가 사는 널찍한 집에 도착했다.<sup>8</sup> 얼마 안 가서 에머의 아버지가 금판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조셉은 금판이 든 금고밖에 보여 줄 수 없다고 단언하며 거절했다. 아이작은 못마땅한 얼굴로 금고를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의심이 풀릴 리가 없었다. 그는 금고 속을 보여 주지 않으면 그것을 집 안에 둘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sup>9</sup>

그런 장인을 가까이 둔 채 번역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조셉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판에 새겨진 여러 낱선 문자를 종이에 옮길 때는 에머가 도움을 주었다.<sup>10</sup> 조셉은 그렇게 옮겨 적은 문자를 우림과 둠뎀으로 번역해 보려고 몇 주에 걸쳐 애를 써 보았다. 하지만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무언가가 부족했다. 조셉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고대 문자들을 연구했다.<sup>11</sup>

몇 달 후, 마틴 해리스가 하모니로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멀리 뉴욕으로 가서 고대 언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틴은 그들이 판에 있는 문자들을 번역할 수 있기를 바랐다.<sup>12</sup>

조셉은 종이에 더 많은 분량의 문자를 옮겨 적고, 거기에 자신의 번역을 함께 적어 넣은 후 마틴에게 건넸다. 마틴은 뛰어난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조셉 부부의 배웅을 받으며 동쪽으로 떠났다.<sup>13</sup>

뉴욕시에 도착한 마틴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찰스 안톤 교수를 찾아갔다. 마틴보다 열다섯 살 정도 아래인 안톤 교수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룬 유명한 백과사전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또한, 그는 얼마 전부터 미국 인디언에 관한 일화를 수집하고 있기도 했다.<sup>14</sup>

안톤 교수는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융통성 없는

학자였지만, 마틴을 반기며 조셉이 보낸 문자들과 번역을 살펴봐 주었다.<sup>15</sup> 그는 이집트어를 몰랐지만, 이집트어에 관한 논문은 몇 편 읽은 적이 있었고 이집트어의 형태도 알았다. 문자를 살펴본 그는 그것이 이집트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알아보았고, 또한 번역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마틴은 안톤 교수에게 필사한 문자를 더 보여 주었다. 안톤 교수는 그것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는 거기에 여러 고대 언어에서 나온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은 진짜라는 증서를 써 주었다. 또한, 컬럼비아 대학에 재직했던 새뮤얼 미칠이라는 학자를 언급하며 자신이 그에게 이 문자들을 가져가서 보여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sup>16</sup>

“새뮤얼 미칠은 이런 고대 언어에 조예가 깊은 학자입니다. 장담하건대, 미칠이라면 선생께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sup>17</sup>

마틴이 주머니에 증서를 집어넣고 방을 나서려 할 때, 안톤 교수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마틴에게 금판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마틴이 말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 주었지요.” 마틴은 이 판을 번역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은 물론, 세상을 멸망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고 간증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이 진짜라는 것까지 증명되었으니, 자신은 이 기록이 번역되고 출판되도록 농장을

문자를 살펴본 안톤 교수는 그것이 이집트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알아보았고, 또한 마틴 해리스에게 그 번역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마틴은 안톤 교수에게 필사한 문자를 더 보여 주었다.

팔아 이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톤 교수가 말했다. “증서를 좀 주시죠.”

마틴은 주머니에서 증서를 꺼내 안톤 교수에게 건넸다. 그러자 안톤 교수는 그것을 갈가리 찢으며 천사들의 성역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조셉이 원하는 것이 판이 번역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그것을 컬럼비아 대학으로 가져가 학자들에게 번역을 맡겨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마틴은 판이 일부가 봉해져 있는 데다가 조셉은 다른 사람에게 판을 보여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톤 교수가 말했다. “저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틴이 조셉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사기꾼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했다.<sup>18</sup>

마틴은 안톤 교수와 헤어진 후 새뮤얼 미첼을 찾아갔다. 마틴을 정중하게 맞이한 미첼 박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마틴이 가져온 문자와 번역을 살펴보았다. 그는 해독을 하지는 못했으나 그 문자들을 보니 이집트 상형 문자가 떠오르다면서, 이 필사된 문자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sup>19</sup>

얼마 후, 마틴은 조셉에게 금판이 있으며, 그에게는 그것을 번역할 권능 또한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면서 뉴욕을 떠나 하모니로 돌아왔다. 그는 조셉에게 뉴욕의 교수들을 만나 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책을 번역할 수 없다면, 이제 그 일은 조셉이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조셉은 어깨가 무거웠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석기를 마련해 주셨음을 알았다.<sup>20</sup>

마틴의 생각도 같았다. 마틴은 팔마이라로 돌아가 사업을 정리한 뒤, 서둘러 돌아와서 서기 역할을 하며 조셉을 돕기로 했다.<sup>21</sup>

1828년 4월, 에머와 조셉은 에머의 친정과 멀지 않은 사스케하나 강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sup>22</sup> 이제 에머의 출산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조셉이 기록을 번역하기 시작한 후로 에머는 종종 서기로서 조셉을 도왔다. 어느 날,

번역을 하던 조셉이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에머,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에머가 성경 속 내용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조셉은 안도하며 말했다. “아, 내가 착각한 줄 알고 걱정했어요.”<sup>23</sup>

조셉이 역사와 경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번역 일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며 에머는 놀라워했다. 조셉은 편지 한 통도 조리 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조셉이 다른 책이나 원고의 도움 없이 기록을 구술하는 것을 늘 가까이서 지켜본 에머는 조셉이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임을 알았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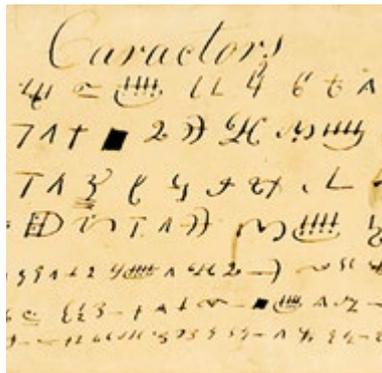
마침내 마틴이 팔마이라에서 돌아와 서기 일을 맡아 주자 에머는 출산 전에 숨을 돌릴 틈이 생겼다.<sup>25</sup> 그러나 일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마틴의 아내인 루시가 마틴을 따라 하모니로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마틴 부부는 둘 다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다.<sup>26</sup> 루시는 남편이 조셉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이유가 미심쩍었고, 남편이 혼자서 뉴욕시로 가버렸던 일로 화가 나 있었다. 거기다 이제 남편이 번역 일을 도우려 하모니로 간다고까지 하니, 마침내 루시는 자기도 직접 판을 봐야겠다고 남편을 따라나서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귀가 어둡던 루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면 사람들이 자신을 홍보고 있는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루시는 타인의 사생활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조셉이 판을 보여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녀는 옷장과 찬장, 가방 등을 뒤지며 그 집을 온통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결국 조셉은 판을 다시 숲속에 숨겨야만 했다.<sup>27</sup>

얼마 후에 루시는 조셉의 집을 떠나 이웃에 목을 곳을 마련했다. 옷장과 찬장은 이제 무사했지만, 루시는 조셉이 마틴의 돈을 노린다는 헛소문을 이웃에 퍼뜨리고 다녔다. 그녀는 몇 주 동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후에 팔마이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주변이 조용해지자 조셉과 마틴의 번역 작업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조셉은 선견자와 계시자로서 신성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있었다. 판이 바로 앞에 있든, 에머의 아마천에 싸여 식탁 위에 있든, 조셉은 해석기, 곧



물문경 금판 문자의 복사본.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며 판을 번역해 냈다.<sup>28</sup>

4월부터 6월 초까지, 어머니는 기록을 구술하는 조셉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활했다.<sup>29</sup> 조셉은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기록을 읽어 나가며, 마틴이 내용을 받아적은 뒤에 “썼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틈을 두곤 했다.<sup>30</sup> 어머니도 번갈아가며 서기 일을 도왔다. 번역이 중단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조셉은 마지막 지점을 알려 주지 않아도 어김없이 그 부분부터 번역을 이어나갔다. 어머니는 그런 조셉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sup>31</sup>

어머니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쌓인 원고도 이제는 두께가 제법 되었고, 마틴은 번역한 원고를 보여 주면 아내도 그 가치를 깨닫고 휘방을 멈추리라고 확신했다.<sup>32</sup> 또한,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을 아내도 기뻐하기를 바랐다.

어느 날, 마틴은 조셉에게 몇 주 동안만 원고를 가지고 팔마이이라에 다녀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sup>33</sup> 조셉은 루시 해리스가 자신의 집에 와서 한 행동을 알기에 마틴의 제의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의심의 화살을 맞고 있을 때에도 자신을 믿어 준 마틴을 기쁘게 해 주고 싶었다.<sup>34</sup>

조셉은 고민 끝에 인도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마틴에게 원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을 받았다.<sup>35</sup>

마틴은 원고를 아내에게 보여 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쭙봐 달라고 간청했다. 조셉이 다시 여쭙보았지만, 응답은 똑같았다. 그래도 마틴은 또다시 애원했고,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하라는 응답이 왔다.

조셉은 원고를 자물쇠가 있는 안전한 곳에 넣어 두고 오직 가족 몇 명에게만 보여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2주 동안 원고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마틴은 그렇게 하기로 굳게 약속하고 원고를 들고서 팔마이이라로 돌아갔다.<sup>36</sup>

그리고 마틴이 떠난 뒤에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나타나 해석기를 가져갔다.<sup>37</sup>

마틴이 떠나고 이틀 후, 어머니는 힘겨운 산고 끝에 사내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아기는 허약한 몸에 질병까지 걸려서 며칠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시련은 어머니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한동안 그 고통은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는 듯 보였다. 조셉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아내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sup>38</sup>

2주가 지나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어머니는 마틴과 원고 일이 걱정되었다.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해리스 씨가 원고를 갖고 무얼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마틴을 찾아보라고 재촉했지만, 조셉은 아내를 홀로 두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를 불러 주세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같이 있어 주실 거예요.”<sup>39</sup>

조셉은 북쪽으로 가는 역마차에 올랐다. 그는 가는 길 내내 음식을 먹을 수도,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조셉은 주께서 마틴이 원고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sup>40</sup>

조셉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맨체스터에 있는 본가에 도착했다. 마침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셉은 마틴에게 사람을 보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청했다.

여덟 시가 되었고, 식사가 다 차려졌다. 그러나 마틴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조셉과 식구들은 마틴을 기다리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틴은 네 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발끝만 바라보며 느릿느릿 스미스 가족의 집으로 걸어왔다.<sup>41</sup> 그는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담장에 걸터앉아 눈이 덮이도록 모자를 푹 눌러썼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스미스 가족들은 그런 마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식사를 하려는 듯 칼과 포크를 집어 들다가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마틴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부짖었다. “나는 내 영혼을 잃어버렸어! 영혼을 잃었다고!”

조셉이 벌떡 일어났다. “마틴, 원고를 잃어버렸습니까?”

마틴이 대답했다. “네. 원고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 하나님.” 조셉이 주먹을 움켜쥐고 신음했다. “다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 있는 조셉과 어머니 스미스의 집.

있었구나!”

조셉은 안절부절못하며 집 안을 맴돌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조셉은 마틴에게 소리쳤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마틴이 울먹였다. “소용없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보고 침대랑 베개 속까지 열어 봤지만 집에는 없단 말입니다.”

“저더러 에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말입니까?”

충격을 받을 에머를 생각하니 조셉은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 전 어떻게 주님 앞에 선단 말입니까?”

루시는 아들을 진정시켜 보려고 했다. 그녀는 겸손히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며 아들을 다독였다.

조셉은 흐느껴 울었고, 애초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날 조셉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하모니로 돌아갔다.<sup>42</sup>

루시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온 가족이 바라던 모든 것이, 지난 몇 년간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이대로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다.<sup>43</sup> ■

인용된 문헌은 모두 saints.lds.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온라인 saints.lds.org/kor에서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

1. 조셉 스미스—역사 1:5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in *JSP*, HI:236–38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2]; Knight, Reminiscences, 3.
2. Knight, Reminiscences,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3];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JSP*, HI:11.
3.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7–6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3]–[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I:238 (draft 2). **주제:** Witnesses of the Book of Mormon(물몬경의 증인들)
4.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8–70.
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9, *JSP*, HI:238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3;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70.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21.
7.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70.
8.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7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I:240 (draft 2).
9.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I:240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3.
1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I:240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3.
1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JSP*, HI:15; Knight, Reminiscences, 3. **주제:** Book of Mormon Translation(물몬경 번역)
1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I:238–40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JSP*, HI:15.
14. MacKay, “Git Them Translated,” 98–100.
15. Bennett, “Read This I Pray Thee,” 192.

1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I:240 (draft 2); Bennett, Journal, Aug. 8, 1831, in Arrington, “James Gordon Bennett’s 1831 Report on ‘The Mormonites,’” 355.
17. [James Gordon Bennett], “Mormon Religion—Clerical Ambition—Western New York—the Mormonites Gone to Ohio,” *Morning Courier and New-York Enquirer*, Sept. 1, 1831, [2].
1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I:240–42 (draft 2); Jennings, “Charles Anthon,” 171–87; Bennett, “Read This I Pray Thee,” 178–216.
1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I:244 (draft 2); Bennett, Journal, Aug. 8, 1831, in Arrington, “James Gordon Bennett’s 1831 Report on ‘The Mormonites,’” 355; Knight, Reminiscences, 4. **주제:** Martin Harris’s Consultations with Scholars
20.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I:15; 이사야 29:11–12; 니파이후서 27:15–19.
2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I:24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2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I:244 (draft 2);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Agreement with Isaac Hale, Apr. 6, 1829, in *JSP*, DI:28–34.
23.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4; 또한 Edmund C. Briggs to Joseph Smith, June 4, 1884, *Saints’ Herald*, June 21, 1884, 396 참조.
2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4.
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I:244 (draft 2);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2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8].
27.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3]–[5], [8]–[9].
2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9]–[10];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29. 에머는 후에 회고록에서 1829년에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을 마무리하던 시기에 자신도 같은 방에 머물며 일을 도왔으며, 번역이 진행되던 1828년에도 함께 일했다고 언급했다.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30. William Pilkington, Affidavit, Cache County, UT, Apr. 3, 1934, in William Pilkington, Autobiography and Statements, Church History Library; “One of the Three Witnesses,” *Deseret News*, Dec. 28, 1881, 10.
31.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3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I:244;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I:15; Knight, Reminiscences, 5; and Historical Introduction to Preface to the Book of Mormon, circa Aug. 1829, in *JSP*, DI:92–93 참조.
3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I:244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0].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0]–[11]; book 7, [1].
35.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I:15.
3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10, in *JSP*, HI:244–46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 Knight, Reminiscences, 5.
3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10, in *JSP*, HI:244–46 (draft 2).
3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주제:** Joseph and Emma Hale Smith Family(조셉과 에머 헤일 스미스 가족)
3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40.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2]–[4].
4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5].
4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5]–[7]. **주제:** Lost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분실된 물몬경 원고)
4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7]. **주제:** Lucy Mack Smith(루시 맥 스미스)

# 성공적으로 복음 나누기

최근에 개종한 아내와 나는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백 명에게 복음을 나누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네버 치쿠웅구와  
교회 역사 고문, 짐바브웨

**아** 내 에버조이스와 나는 짐바브웨 동쪽 국경에 위치한 무타레라는 소도시에서 산다. 침례와 확인을 받자마자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할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다. 경전에서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교리와 성약 33:7)라는 구절을 읽고 나서,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낮을 휘둘러 [우리]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거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무타레군에 있는 당가엠프라라는 신설 지부의 회원이었다. 1991년 당시 지부 회원 수는 25명이었다.

우리는 곧 지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던 장년 부부 선교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우리에게 목표를 세우라고 제안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싶었으므로, 지부 선교사로 봉사하는 첫해 동안 100명에게 복음을 나누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너무 순진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 보였다.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었다.

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던 중에 우리 안에

음악적 재능이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재능을 십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성스러운 음악을 부르는 동안 영이 함께하여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회복된 복음 메시지도 사람들을 감화시켰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지부 합창단에 들라고 권했고, 회원, 비회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 복음을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침례의 물가로 나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선교 사업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금식하고 기도했다. 지역 주민들이 이 가족들의 의로운 모범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가족들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더 많이 받게 되었으며, 구도자 명단에는 침례받을 사람들로 넘쳤다.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던 새로운 회원 부부들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 부모들은 복음 문화와 맞지 않는 전통을 뒤로할 수 있었고, 술과 담배를 끊었다.



네버와 에버조이스 치쿠웅구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쳤다. 과거에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많은 사람이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지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큰 축복이 되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셨다.

당시 무타레에 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가 심해질수록, 교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는 듯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혹 부정을 저지르지나 않는지 조사하기 위해 군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일반인으로 위장하고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영에 감화되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후에 침례받고 신권에 성임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은 사람과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 기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았던 까닭에, 우리는 지역 사회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

편집자 주: 당가엠틀라 지부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자 곧 예배당이 지어졌다. 그리고 선교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1995년에 무타레는 여덟 개의 단위 조직을 갖춘 지방부가 되었다.





호르헤 에프 세바요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속삭임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지진이나 사나운 바람 또는 맹렬한 불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작은 힘이며, 우리가 그 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 10년 2월 27일 오전 3시 34분, 모멘트 규모로 진도 8.8의 지진이 발생하여 칠레의 여러 지역이 극심하게 흔들렸으며,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 대지진의 진원지 근처에서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저는 지진과 이어지는 여진이 대회 참석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회의 각 모임 참석률이 여느 대회보다 높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스테이크 회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상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몇 주 후에 스테이크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 모임 참석률이 여전히 높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진의 횡수와 규모가 줄자 교회 참석률도 줄었다고 대답했습니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가 무너진 슬픈 사건 후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마음의 화평과 위안을 얻고자 각자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간절함은 줄어들고 매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과 간증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진도, 폭풍도, 자연재해나 인재도, 또는 이로 인한 비극도 아닙니다.

## 엘리아와 세미한 음성

선지자 엘리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페니키아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입했습니다. 아합 왕의 궁정에 있던 많은 바알의 제사들에 도전하여 이긴 엘리아는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열왕기상 18:4, 13, 19, 21~40; 19:1~4 참조)

광야에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은 후, 엘리아는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열왕기상 19:5~8 참조) 광야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아에게 밤을 보낸 굴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아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자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열왕기상 19:11~12) 맹렬한 바람과 지진과 불일지라도, 그런 것에는 선지자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자연력이 나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했으며,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열왕기상 19:11~12 참조) 주님은 아람 왕으로 기름부을 자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을 자를 알려 주셨으며, 엘리야를 계승할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성별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 음성을 찾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엘리야에게 임한 것과 같은 음성, 곧 그의 생애와 성역 중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할 일을 알려 준 그 음성을 여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길을 가도록 부추기는 요란하고 세속적인 음성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세미한 음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니파이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3)

그리고 우리는 흡족히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경전에서, 특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 쓰이고 흠 없이 보존된 물문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영원하신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 주는 현대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가 새롭고 복잡한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근래에는 세상에 팽배한 혼란과 각종 철학이 결혼과 가족의 개념을 영원히 뒤바꾸려 합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들은 확고하고 용기 있게, 사랑에 찬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가족의 신성한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입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통해 조상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연차 대회 때마다 교회를 위해 추가적인 영적 인도를 제공합니다.

### 성신이 인도할 것임

니파이는 더 나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니파이후서 32:5)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니파이는 이제 우리가 신회의 세 번째 일원인 성신과 직접, 개인적으로 소통해야 함을 알려 줍니다.

니파이는 이 주제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삼십 년 전, 니파이가 가족과 함께 사막에 머물며 약속의 땅으로 갈 배를 만들고 있었을 때, 그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후에도 죄악을 저지른 형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당신들은 죄악을 행하는 데는 재빠르나, 주 곧 당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나이다. 당신들은 천사를 보았고 그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으니 참으로 당신들은 시시로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우레 소리처럼 당신들에게 말하며, 그로 인해 땅이 마치 갈라질 듯 진동하였나이다.”(니파이전서 17:45)

### 속삭임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자녀들과 하시는 소통은 대개 성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성신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음성, 곧 “모든 것을 꿰뚫고 속삭이며 파고드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교리와 성약 85:6) 우리와 소통합니다. 그 온화한 음성을 귀담아 들읍시다. 누군가가 천둥소리로 말해야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이 바람이나 지진, 또는 불 속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주님은 성신을 통해,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음성은 소리라기보다는 느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소리보다는 느낌으로 오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나 느낌으로 오는 영의 음성으로 말입니다.”<sup>2</sup>

우리는 성령이 전하는 말을 우리의 귀로 듣기보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느낍니다. 이런 속삭임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열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신이 고요하고 작은 소리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난 후 보낼 성령에 관해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은 누구나 성신을 통해 하늘에서 오는 개인적인 인도와 영감,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권리와 축복을 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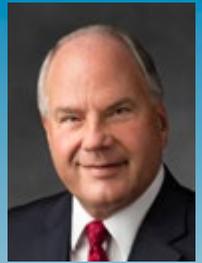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따르십시오. 확인을 받을 때, 권세를 지닌 분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증거하는 그 특별한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이사야 30:21]라고 말할 것입니다.”<sup>3</sup>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2. 보이드 케이 패커,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7~18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믿고,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29쪽.

#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무장한 윌리 손수레 부대원들은  
고난과 굶주림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제** 이야기는 영국 시골의 구릉진 푸른 전원에서 시작합니다. 존 베넷 호킨스는 1825년에 글로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은 1849년에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에 일단의 후기 성도와 함께 헨리 웨어 호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1852년 8월에 유타에 도착했으며, 유타 정착 초기에 그곳에 정착한 최초의 대장장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후에 그와 결혼한 세라 엘리자베스 몰턴도 영국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어체스터는 런던 북부와 버밍엄 동부에서 약 105km 떨어진 네네강 근처의 작은 마을인데, 세라 엘리자베스는 1837년에 그곳에서 토머스 몰턴과 에스터 마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라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세라가 불과 두 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1840년에 세라 덴턴과 재혼했습니다.

1837년 6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히버 시 김볼(1801~1868) 장로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영국에 선교 사업을 하러 왔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가르친 여러 개종자 중 한 가족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1807~1857) 장로가 쓴 소책자 *A Voice of Warning*(경고의 음성)을 몰턴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토머스와 세라는 이 소책자를 읽고 개종하여 1841년 12월 29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두 자녀, 즉 네살배기 세라 엘리자베스와 7개월 된 메리 앤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개종자들의 가슴에는 집합의 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성도와 함께할 수 있는 미국에 이민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다른 대다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몰턴 가족은 그 소망을 실현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확고했기에, 과일 병에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 영구 이주 기금

1849년에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미국으로 올 여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영구 이주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모인 기금으로 성도들은 마차 행렬을 지어 여행했으나, 마차는 느릴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영구 이주 기금의 도움을 받더라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손수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살펴 보았고, 손수레를 사용하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몰턴 가족의 자녀는 일곱 명으로 늘어났지만, 과일 병에 모은

왼쪽: 오늘날의 영국 글로스터의 시골 지역

사진: iEddieCloud/stock.adobe.com



미국 네브래스카주 서쪽에 있는 스코츠블러프 국립 기념비

돈과 영구 이주 기금이 있었고, 저렴한 이동수단으로 여행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이민의 꿈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아홉 명의 가족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했으므로,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주로 보릿가루로 연명했습니다.

출발할 때가 다가오자, 토머스는 임신 중인 아내 때문에 길을 떠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던 세라 덴턴 몰턴은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 한 선교사가 세라에게 축복을 주면서 유타로 간다면 가족 중 어느 하나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하게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조만간 열 명으로 불어날 가족에게는 실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856년, 손턴 호를 타고 영국 리버풀에서 항해를 시작한 몰턴 가족은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사내아이를 얻었습니다. 손턴 호는 덴마크, 스웨덴, 영국 성도 764명을 운송하기 위해 빌린 배였으며, 이들을 인솔한 사람은 제임스 그레이 윌리라는 선교사였습니다.

6주 후, 손턴 호는 뉴욕항에 정박했습니다. 몰턴 가족은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서부로 가는 긴 여행에 나서, 1856년 6월에 손수레 부대의 출발점인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불과 3일 전, 아이오와시티에서는 에드워드 벙커 부대장의 손수레 부대가 쓸 만한 손수레를 대부분 끌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 손수레 문제

약 2주 후, 윌리 부대는 에드워드 마틴이 이끄는 다른

성도들과 합류했습니다. 제일 먼저 길을 나선 세 손수레 부대에 장비를 공급하고 그들이 출발하도록 열심히 도왔던 아이오와시티의 교회 대리인들은 이제 뒤늦게 도착한 예상 밖의 대규모 부대에 물자를 대느라 무진장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도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250대의 손수레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남자는 모두 손수레를 만들고 여자들은 수십 개의 여행용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숙련된 손수레 제조자 중 다수가 규격을 지키지 않고 다양한 크기와 강도를 지닌 수레를 만든 탓으로 여정에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수레가 많이 필요했으므로, 채 마르지도 않은 목재로 손수레를 만들고, 생가죽과 주석을 바퀴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 손수레에는 식량과, 많은 경우 성도들의 전 재산이 실렸습니다.

손수레마다 180~230kg 정도의 밀가루, 침구, 요리 도구와 옷을 실었으며, 손수레에 한 명당 8kg의 개인 짐만 실을 수 있었습니다.

토머스 몰턴과 그의 가족 열 명은 윌리 부대장이 이끄는 네 번째 손수레 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그 부대는 400명이 넘는 성도로 구성되었으며, 노년층이 많았습니다. 그해 9월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원 404명, 포장마차 6대, 손수레 87대, 황소 6쌍, 암소 32마리, 노새 5마리”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sup>1</sup>

몰턴 가족에게는 덮개 있는 손수레 한 대와 덮개 없는 손수레 한 대가 배정되었습니다. 토머스와 그 아내는 덮개 있는 수레를 끌었고, 새로 태어난 아기 찰스와 딸 리지(소피아 엘리자베스)가 이 수레에 탔습니다. 로티(살렛)는 수레가 언덕을



내려갈 때마다 탈 수 있었습니다. 여덟 살 된 제임스 히버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허리에 밧줄을 묶고 뒤에서 걸었습니다. 다른 무거운 손수레는 큰딸 세라 엘리자베스(19세)와 둘째 딸 메리 앤(15세)과 남동생 윌리엄(12세)과 조셉(10세)이 끌었습니다.

1856년 7월, 몰턴 가족은 아이오와시티에 작별을 고하고 서부로 향한 2,090km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6일을 여행한 끝에, 그들은 네브래스카주 윈터쿼터스(플로렌스)에 도착했습니다. 윈터쿼터스와 솔트레이크시티 사이에는 거점 도시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종전에 그랬듯이, 수레를 수선하고 물품을 장만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윌리 부대가 윈터쿼터를 떠날 준비를 하기에는 계절상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가야 할지, 아니면 봄까지 머물러야 할지를 결정하는 평의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그 길을 가 본 몇몇 사람은 때늦게 여행하는 위험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으나, 윌리 부대장과 많은 대원은 플로렌스에 겨울을 보낼 숙소가 없으므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줄어드는 식량

8월 18일, 윌리 부대원들은 식량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포트래미(현재의 와이오밍주 래미 북부)에서 물품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각 수레에 45kg 밀가루 포대를 추가로 넣었으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보낸 보급 마차를 만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로에 이주자가 더는 없다고 생각한 보급 마차 마부들은 윌리 부대가 도착하기 전인 9월 말에

솔트레이크시티로 되돌아갔습니다.

몰턴 가족에게는 10인 가족이 끌어야 하는 짐이 너무 무거웠기에 그들은 플로렌스에 물품 상자를 하나 남기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미 리버풀항에 수화물을 남겨두었으며, 배 안에는 옷 상자 하나를, 뉴욕시에서는 옷 트렁크 하나를, 아이오와시티에서 개인 소지품이 대부분 들어 있는 트렁크 하나를 남겨 두고 왔던 터였습니다. 여로에서조차 그들은 짐을 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현대 생활의 각종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은 몰턴 가족과 손수레 부대에 있었던 다른 훌륭한 남자와 여자들이 일상적으로 겪은 고통을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물집 잡힌 손발, 근육통, 먼지와 모래, 햇빛으로 입은 화상, 파리와 모기, 우르르 몰려오는 버팔로 떼, 뜻밖에 맞닥뜨리는 아메리칸 인디언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강을 건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손수레를 끌고 모래와 미끄러운 바위를 밟고 급류나 깊은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영양 부족으로 오는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몰턴 가족 아이들은 그 여정에서 급격히 줄어드는 보급품에 식량을 보태고자 어머니와 함께 들판에 가서 야생 밀을 주웠습니다. 어떤 때는 세 명이 겨우 보리 빵 한 개와 사과 한 개로 하루를 나기도 했습니다.

9월 12일 황혼이 물들기 직전에 영국 선교부에서 귀환하는 선교사들이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 아내의 외고조부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프랭클린 디 리차즈(1821~1899) 장로가 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리차즈 장로와 그 밖의 사람들은 손수레 부대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들이 서둘러



미국 와이오밍주 마틴스 코브 부근을 흐르는 스위트워터 강

솔트레이크밸리로 가서 최대한 빨리 지원 부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월 30일, 윌리 부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동쪽으로 645km 떨어져 있는 와이오밍주 포트래러미에 도착했습니다.

10월 초에 겨울이 시작되자 부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있었기에, 윌리 부대장은 밀가루 배급량을 성인 남성에게는 425g, 성인 여자에게는 368g, 어린이에게는 255g, 유아에게는 142g까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이어 휘몰아치는 바람과 눈보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0일 아침까지 10cm 깊이의 눈이 쌓여 천막과 마차 덮개가 눈의 무게로 부서졌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날 밤, 부대원 중 다섯 명과 수레를 끄는 동물 일부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으며, 다음 사흘 동안 다섯 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아픈 사람을 먼저 먹이기 위해 비교적 강한 남자 중 다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가야 했습니다.

### 구조대가 출발하다

윌리 부대는 스위트워터 강의 록키리지에서 아래로 3km 떨어진 곳에 야영지를 만들고 기아와 추위, 고통 속에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프랭클린 디 리차즈 일행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자마자 영 회장에게 이주자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솔트레이크밸리의 성도들은 이듬해까지는 이주자가 더 이상 오지 않으리라고 여겼기에, 그 고난에 관한 소식은 들볼처럼 퍼졌습니다.

이틀 후인 1856년 10월 6일, 구 태버내클에서 연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 회장은 연단에서 노새나 말이 끄는 마차에 음식과 보급품을 싣고 다음 날 도움을 주러 가라고 남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sup>2</sup>

그날 구 태버내클에 있었던 존 베넷 호킨스는 도와주라는 그 호소에 응하였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발한 수백 명의 구조대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0월 21일 저녁, 구조대 마차가 드디어 윌리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동상을 입은 굶주린 생존자들에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 진외증조부모가 될 존 베넷 호킨스와 세라 엘리자베스 몰턴이 처음 만난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10월 22일, 구조대원 중 일부는 다른 손수레 부대를 도우러 갔으며, 윌리엄 에이치 김볼을 비롯하여 마차를 몰고 온 나머지 구조대원들은 윌리 부대를 맡아서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기에 너무 약한 사람은 소유물을 마차에 싣고 그 옆에서 걸었으며,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마차에 탔습니다. 로키리지에 도착하자 또 다른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기를 쓰며 산등성이 옆을 오르면서, 그들은 얼어 죽지 않도록 담요와 누비이불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부대원 중 약 40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sup>3</sup>

날씨가 너무나 추워, 많은 성도가 산등성을 넘으면서 손과 발, 얼굴에 동상을 입었습니다. 서리로 눈이 먼 여성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턴 부부가 여덟 명의 자녀와 함께 깊이 쌓인 눈 속에서 손수레 두 대를 밀고 당기며 힘겹게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수레 하나는 몰턴 부부가 끌었습니다. 그 손수레에는 소중한 로티와 리지와 아기 찰스가 타고 있었으며, 어린 제임스 히버는 허리에 밧줄이 묶인 채로 넘어질 듯 질질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수레는 세라 엘리자베스와 다른 세 자녀가 밀며 끌었습니다. 한 친절하 노부인이 손수레 뒤에서 애를 쓰며 따라오는 어린 제임스 히버를 보다 못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친절하 행동으로 히버의 오른손은 무사했으나 영하의 날씨에 노출된 왼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그들은 히버의 왼손가락 몇 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11월 9일 이른 오후, 고난에 시달린 사람들을 태운 마차들은 현재 조셉 스미스 기념관이 서 있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십일조 사무실 앞에 멈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팔다리가 얼어붙은 채 도착했고, 69명이 여정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몰턴 가족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약속은 성취되어, 토머스 몰턴과 세라 덴튼 몰턴은 자녀를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 구조에서 로맨스로

월리 부대는 그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보살핌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솔트레이크 시민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몰턴 가족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하는 데 일조한, 한 젊은 영웅에 대한 세라 엘리자베스의 감사와 고마움은 곧이어 로맨스와 애정으로 피어났습니다.

1856년 12월 5일, 세라 엘리자베스는 소중한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자신을 구조한 존 베넷 호킨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는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시티에 가정을 꾸렸으며 세 아들과 일곱 딸을 축복받았습니다. 그 딸 중 하나인 에스더 에밀리는 1891년에 제 조부 찰스 래스번드와 결혼했습니다.

7월 24일, 우리는 개척자의 날을 기념하며, 미국 서부의 솔트레이크밸리와 다른 여러 지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개척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복음의 길을 닦았거나 닦고 계시는 전 세계 후기 성도 개척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왜 그들은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저는 개척자의 증손으로서 그들의 고초가 헛되지 않았다는 제 증언과 간증을 더합니다. 그분들이 느낀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분들이 알았던 것을 저도 알며, 이를 증거합니다. ■

2007년 7월 24일에 솔트레이크시티 태버넬클에서 열린 개척자의 날 새벽 예배에서 전한 메시지에서 발췌함.

### 주

1. Report by F.D. Richards and Daniel Spencer, "Smith, Marilyn Austin, *Faithful Stewards—the Life of James Gray Willie and Elizabeth Ann Pettit*, 95–120," [history.lds.org](http://history.lds.org).
2. See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Oct. 15, 1856, 252; see also LeRoy R. Hafen and Ann W. Hafen, *Handcarts to Zion* (1981), 120–21.
3. 이들 중, 항해 중에 사망한 7명과 아이오와시티에서 사망한 4명을 포함하여 19명이 포트래리미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 또 다른 19명은 포트래리미를 지나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는데, 이는 당시 구조대의 도착이 있기까지 사망한 사람 중 대다수에 해당한다.

홀로

# 신앙을 지킴

라이언 더블유 잘츠기버  
교회 역사부

**오** 늘날 후기 성도들은 대부분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일” (모로나이서 6:5) 수 있는 와드나 지부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모로나이는 그의 백성이 멸망한 후에 홀로 제자로서, 역사에 가장 오래 남게 될 일을 행했다.

교회를 통틀어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립되었을 때 홀로 신앙을 지킨 후기 성도가 많았다. 어떤 이들은 모로나이처럼 미래 세대에게 증인과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다. 그 밖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살았다.

## 이날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하며

프란티슈카 브로덜로바는 1913년에 선교사가 비엔나의 자기 집 문을 두드릴 때만 해도 자신이

심화: 랜 스펀서

전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자신의 나라에 홀로 남아야 했던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충실함을 유지했는지 알아보자.

교회사에서 하게 될 역할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그녀가 개종한 이듬해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무너지고, 선교사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며, 다수의 남성 회원이 군대에 징집되었다. 남은 프란티슈카와 몇 안 되는 다른 자매들은 자신들끼리 모임을 했다.

프란티슈카가 수년 동안 교회 회원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전쟁이 끝나자 프란티슈카의 남편 프란티세크는 새로 들어선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서 직책 하나를 약속받았다. 그들이 프라하로 이주한 후, 프란티슈카는 그 나라의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몇 달 후, 프란티세크는 프란티슈카가 부양해야 할 어린 두 딸 프랜시스와 제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프란티슈카는 혼자서 두 딸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프랜시스도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프란티슈카 브로딜로바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13년에 비엔나에서 교회에 가입했으며, 1929년까지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접촉하지 못했다.

프란티슈카는 1929년에 존 에이 윗소 장로(두 사람 모두 가운데 줄에 있음)가 복음 전파를 위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헌납할 때 그곳에 있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였거든요!<sup>1)</sup>  
프란티슈카는 또한

오스트리아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사들을 체코슬로바키아에 보내 달라는 편지를 썼다. 약 40년 전에 프라하의 마지막 선교사가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후, 그 도시에서 추방된 적이 있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주저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긴 했으나, 그다지 바뀐 게 없다는 점을 교회 지도자들은 두려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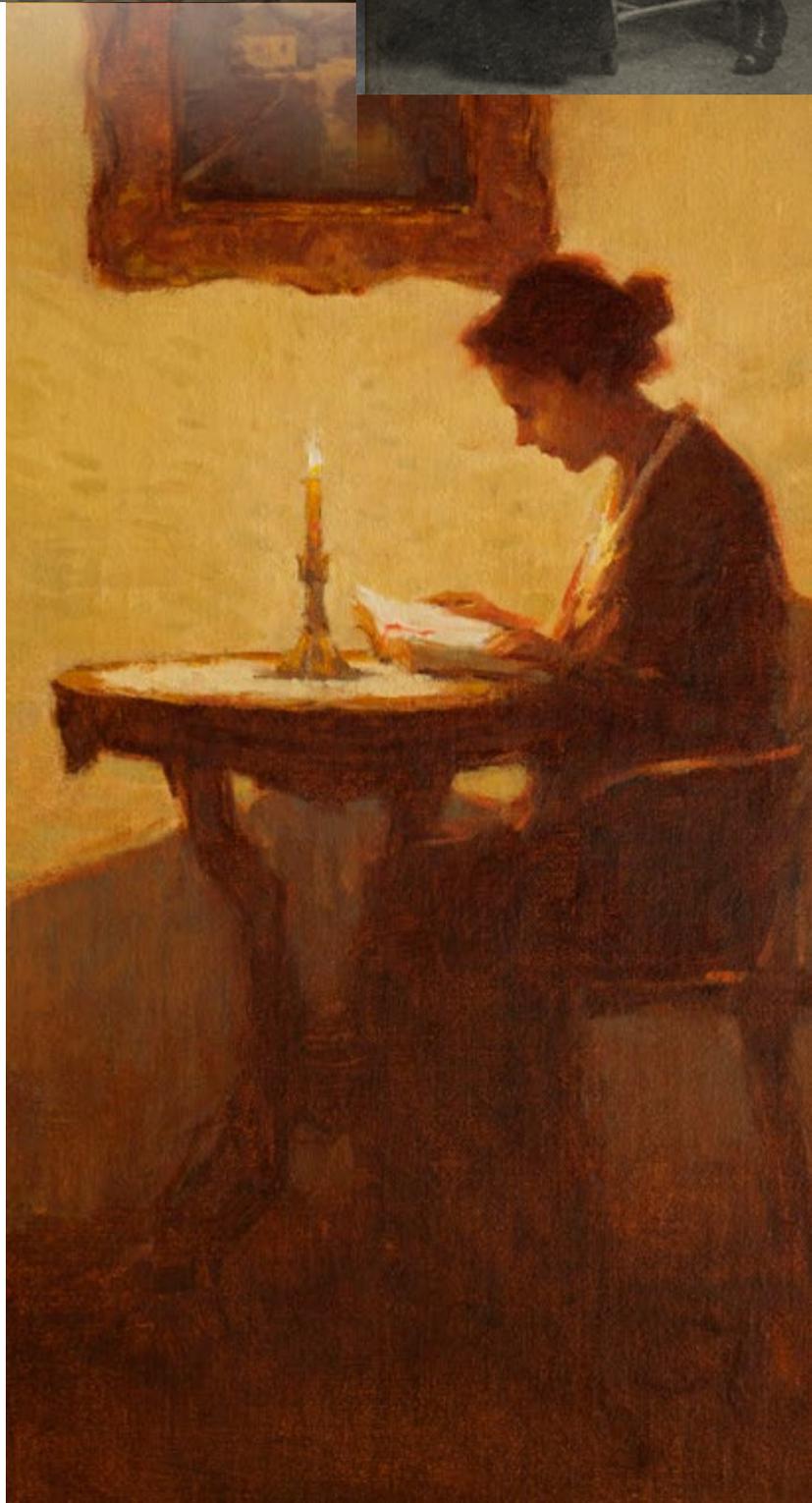
그래도 프란티슈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쓰며 선교부가 개설되기를 기도했다. 1928년, 프란티슈카가 10년 동안 혼자 힘으로 버텨 온 끝에, 여러 해 전 프라하에서 전도했던 83세의 토머스 비에싱거가 돌아왔다. 이제 가족은 고립 상태에서 벗어난 듯 했다. 하지만 얼마 후, 비에싱거 장로는 건강이 나빠져 그 나라를 떠나야만 했다.

프란티슈카는 낙담했지만, 해외의 회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인내의 보상을 받았다. 1929년 7월 24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윗소(1872~1952) 장로가 일단의 선교사와 함께 프라하에 도착한 것이다. 그날 저녁, 프란티슈카와 일행은 카를슈테인 성 근처의 언덕에 올라갔다. 윗소 장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헌납하고 공식적으로 선교부를 조직했다. 후에 프란티슈카는 이렇게 썼다.

“저희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수년 동안 이날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sup>2)</sup>

그 지부 회원들은 거의 6개월 동안 프란티슈카의 집에서 모임을 했다. 프란티슈카는 딸이 몰몬경을 체코어로 번역하는 일을 도왔으며 현재의 체코 공화국에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프란티슈카처럼 많은 후기 성도들은 고립을 견뎌냈다. 다음의 일화들은 조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놓은 용감한 남성들과 여성들의 노력을 그려 내고 있다.



남편이 죽은 후, 프란티슈카는 혼자 두 딸을 키웠다.

프란티슈카처럼 많은 후기 성도들은 고립을 견뎌 냈다. 이 남성들과 여성들은 신앙의 불꽃을 살리고 복음을 전했다. 고국에 교회를 세웠다.

1924년에 일본 선교부가 폐쇄되자 후지야 나라(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는 감리 장로로서 회원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다.



### 참된 신앙이라는 변함없는 은사

1924년, 일본 선교부가 폐쇄되자 잃어버리고 버림받았다고 느낀 회원이 많았다. 일본에 있는 약 160명의 회원을 인도할 책임은 이 나라의 감리 장로인 후지야 나라에게 주어졌다. 그는 철도 기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흩어진 회원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후지야는 방문할 수 없을 때, 슈로(중려나무 잎)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연락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이어지는 격변의 시기 동안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남은 성도들을 격려했다.

후지야가 만주로 전근하고, 그를 대신한 감리 장로가 1937년에 갑자기 사망하자, 교회는 일본에 있는 회원들과의 연락이 곧 끊기고 말았다. 후지야는 말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와 서신을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 교회가 [일본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sup>3</sup>

제2차 세계 대전 중 후지야는 도쿄로 돌아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주 주일 학교 모임을 했다. 전쟁이 끝난 후, 후지야는 미군에 복무 중인 성도 에드워드 엘 클리솔드가 일본에 있는 교회 회원에게 연락을

요청하며 보낸 통지문을 발견했다.

후지야는 즉시 에드워드를 호텔 객실에서 만났다. 도쿄의 후기 성도 모임에 참석한 에드워드는 거의 100명이 모인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후지야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변함없는 은사는 참된 신앙을 알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sup>4</sup>

### 하와이에 교회를 세움

조너선 에이치 나펠라는 1851년에 아내 키티와 함께 침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마우이섬의 존경받는 판사였다. 교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판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조너선은 하와이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쏟았다. 조너선은 선교사인 조지 큐 캐넌에게 마우이 언어를 가르치고 물문경 번역을 도왔으며, 모든 외국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3년도 지나지 않아 3,000명이 넘는 하와이 원주민이 교회에 가입했다. 조너선은 이렇게 썼다. “우리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이 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신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신앙을 지닌 사람이 많습니다.”<sup>5</sup>

1872년, 키티 나펠라는 나병에 걸려

오른쪽: 하와이 최초의 개종자 중 한 사람인 조너선 나펠라는 몰몬경을 하와이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왔다. 아래: 빌헬름 프리드리히(왼쪽에서 두 번째)와 에밀 호페(뒷줄 중앙)는 아르헨티나 최초의 침례식에 참석했다.



조너선 나펠라의 초상화, 교회 역사 도서관 및 기록 저장소 제공

몰로카이섬의 나환자 수용소로 이주해야 했다. 조너선은 성도들과 함께 머무는 대신, 자기도 그 수용소에 들여보내 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보건국에 보낸 편지에 “짧은 시간이나마 남은 생을 아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썼다.<sup>6</sup> 청원서는 수리되었고, 조너선은 몰로카이 지부 회장이 되었다. 조너선은 현지의 가톨릭 사제 데미언 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나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보살폈다. 조너선은 결국 수용소에서 얻은 나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기쁩니다”

프리드리히 가족과 호페 가족은 1920년대 초 독일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면서 그 나라의 유일한 후기 성도가 되었다. 빌헬름 프리드리히와 에밀 호페는 새로운 나라에서 소책자를 배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임에 오도록 초대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다. 빌헬름은 이렇게 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실 진지한 친구들을 보내 주실 것이라고 온전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기쁩니다.”<sup>7</sup>

하지만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다. 두 가족은 멀리 떨어져 살았기에, 함께 모이려면 2시간을 여행해야 했다. 에밀은 아론 신권의 집사이고 빌헬름은 교사였으므로 성찬과 같은 의식을 집행하거나 신권 축복을 줄 수 없었다.

1924년, 힐데가르트 호페는 여자아이를 낳았으나 아기는 두 달 만에 죽고 말았다. 슬픔에 잠긴 힐데가르트는 어떻게 하면 아기의 이름을 교회 기록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렇게 해서, 빌헬름은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지도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끈기를 잃지  
않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기에, 후에  
다른 성도들이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그 밖의  
충실한 성도들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복음 자료실  
앱의 교회사 난에 나오는  
나라별 역사를 보거나  
history.lds.org를 방문한다.

필립과 아벨리스 부부(왼쪽)가  
코트디부아르에서 퀴시영과 아가테  
아포웨 부부를 만나자, 두 부부는  
자기들이 그곳 교회에서 외톨이가  
아님을 알고 기뻐했다.



일 년 반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1873~1939) 장로가  
지명을 받아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늘어나는  
개종자들을 만나러 왔다. 벨라드 장로는  
1925년 12월에 도착하여 개종자 몇  
명에게 침례를 주고 지부를 조직했다.  
그런 후 성탄절에 선교 사업을 위해  
남미를 헌납하고 그 대륙에 첫 번째  
선교부를 조직했다.

#### 자국 국민에게 복음을 가져다주다

선교사들이 1980년 독일 쾰른의  
자택 문을 두드릴 당시, 필립 아사드와  
아벨리스 아사드는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고 느꼈다. 곧이어 필립은  
모국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가 회복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솟구침을  
느꼈다. 필립은 이렇게 회상했다.  
“1986년에 아내와 함께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한 후, 제 가족과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아이보리코스트로 돌아가 제가 받은  
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sup>8</sup>

필립은 독일을 떠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했다. 코트디부아르에는  
교회의 단위 조직이 없었으나 다른  
나라에 있는 동안 교회에 가입한 회원이  
많았다. 아사드 가족은 이들의 명단을  
받고, 이듬해에 각 사람에게 부지런히  
편지를 썼다. 아사드 가족은 점차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폈으며, 허락을 받아 자신의  
집에서 일요일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이어서 와드와 지부가 세워지고,  
1997년에 코트디부아르의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

#### 주

1. Frances McOmer, in Ruth McOmer Pratt, “Frantiska Vesela Brodilova,” unpublished manuscript (2009), 18.
2. Františka Brodilová, in Pratt, “Frantiska Vesela Brodilova,” 25.
3. Fujiya Nara, in Lee Benson, “Japanese Member Survives Adversity,” *Church News*, Feb. 17, 1979, 7.
4. Fujiya Nara, in Benson, “Japanese Member Survives Adversity,” 7.
5. Jonathan Napela, in “Foreign Correspondence: Sandwich Islands—Minutes of Conference, Makawao, April 1st, 1852,” *Deseret News*, Nov. 27, 1852, 4.
6. Jonathan Napela, in Fred E. Woods, “A Most Influential Mormon Islander: Jonathan Hawaii Napela,” *The Hawaiian Journal of History*, vol. 42 (2008), 148.
7. Wilhelm Friedrichs, letter, dated Mar. 5, 1924, Argentine Mission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8. 로버트 엘 머서, “아이보리코스트의 교회 개척자들,” *리아호나*, 1999년 3월호, 19쪽.



# 몰몬경은 삶을 바꾸어 줍니다

다음 개종자들은 몰몬경 읽기를  
통해 신앙을 키웠다.

**참**으로 몰몬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려 주기 위해 마련된 선물이다. 페루 리마의 교회 회원인 엔리케 세르파 부스타만테는 몰몬경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보내시는 편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권고와 위안과 지침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매우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축복과 복음을 이해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랑의 편지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 세계의 개종자 중 몇 명이 보낸 간증이다. 이 간증은 그들이 교회에 관해 공부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던 몰몬경 구절에 관한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제**가 몰몬경을 본 것은 나이지리아 이바단에 있는 조카딸의 집에서였습니다. 독서광이었던 저는 조카의 집에 있는 몰몬경을 보았을 때 왜 그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져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부제를 보면서 저는 구주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제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시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당신의 율법과 의식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며 그분의 성역에 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부제에 이끌려 저는 교회에 관해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알기 위해 스스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몰몬경에 담긴 권고에 순종하면서 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모로나아서 10:4 참조) 이제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에제키엘 아케, 미국 아이다호주

## 니파이전서 8장—“내가 이전에 맞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운 열매

**니**파이전서 8장 11~12절에서, 리하이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극히 감미로워 내가 이전에 맞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우니라]. ...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는지라.”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이 열매가 정말 특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으며, 저 역시 그 열매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리하이에게 여러모로 공감했습니다. 제가 리하이라면, 그리고 이런 열매가 존재한다면,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특히나 제 부모님이 아직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절을 읽으면, 그 구절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그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열매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는, 그것이 경전에 얼마나 정확히 설명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전은 진정 선지자가 쓴 진리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염은진, 한국 경기도

### 야곱서 5장 74절—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

**저**는 교회에 대해 배우면서, 야곱서 5장 7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읽는 순간부터 그것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인 회원이었고,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열망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언젠가는 철학과 신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려고 입학시험에도 이미 합격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전 구절을 처음 읽었던 때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기억에 그때는 후기 성도 교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한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과반 사이 쉬는 시간에,

저는 게시판에서 선교사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관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받으신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야곱서 5장 74절을 읽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나이인 두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께 봉사할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이 있기 전날 밤에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고, 교회 모임이 있던 날 밤에는,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세부 동 선교부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한 후 명예롭게 귀환했습니다.

조셉 구티에레즈, 필리핀 바탕가스

### 이노스서—죄에 대한 용서

**몰**몬경을 처음 펼쳤을 때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시에 저는 용서하는 것, 특히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었고, 제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지 몹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매 선교사 중 한 명이 제게 경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것에 관해 기도해 보라고, 제게 필요한 경전 구절이 나타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휙휙 넘기다가 멈추었을 때 나오는 구절을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이노스서 4~6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순간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니퍼 안드레스키, 미국 캘리포니아주

### 모사이야서 27장—변화의 기회

**제**가 처음으로 몰몬경을 읽었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모사이야서에서 엘마의 아들이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신을 느끼고 믿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누구에게나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그라시아 엔리케 곤살레스, 칠레 마울레

### 모사이야서 27:28~29—행복과 구속

**저**는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 되었을 때, 모사이야서 27장 28~29절을 읽고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에제키엘 아케



조셉 구티에레스



제니퍼 안드레스키



마리-상탈 오그



베누 바스카 나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 많은 삶에서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에 무척 감사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느끼는 행복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토록 분명히 확신하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그리하여 너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앨마서 5:62) 앨마의 권유를 받아들인 후에 제가 건져 내심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 위안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앨마 이세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감감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나이다. 내 영혼이 영원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내가 빼내심을 입어, 내 영혼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아니하나이다.”(모사이야서 27:29) 이 구절을 읽고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구주께서 공의의 대가를 치르셔서, 제가 회개할 때마다 변함없는 구속의 사랑을 거둬 느끼게 해 주심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마리-상탈 오그, 캐나다 온타리오

### 그 작은 파란 책

**저**는 인도에서 성장했고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나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부활절 일요일이었습니다. 직장 일 때문에 교회에 늦게 되어 청소년 주일학교 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 선교사가 공과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파란색 표지의 책에서 성구를 몇 개 인용했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그 장로님이 가르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강한 느낌을 받았고 그 책을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과가 끝나자 저는 곧바로 그 장로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 책이 필요해요.” 그 책은 그 장로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제게 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제가 그것을 보고 만져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책 표지에는 금박 글씨로 “몰몬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책이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다시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제 주소를 물어보았고 몰몬경을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들은 곧 우리 집을 방문했고 제게 몰몬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제게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부활절, 제 삶에는 몰몬경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왔습니다. 그 작은 파란 책은 제 인생에 삶의 활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배울 특권을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

베누 바스카 나카, 미국 캘리포니아주



### 몰몬경에 담긴 강력한 진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관해 더 알고자 노력할 때 강력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디에서도 몰몬경보다 더 분명하고 힘있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간증합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가장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몰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61, 62쪽.

##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

**열** 두 살 무렵, 나는 교회 영화를 한 편 보았다.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님께서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미국 유타주 세인트조지의 후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는 영화였다.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주님,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어린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나는 칠레에 살고 있었으므로,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충실한 성도인지 상상해 보려 했다. 나는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

30여 년이 훌쩍 지난 2005년에, 가족들과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진학할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미 그 대학에 다니고 있던 큰아들이 있는 유타주 프로보로 갔다. 도착한 다음 날 저녁, 나는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

보러 가고 싶구나.”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빠, 세인트조지는 너무 멀어요.” 하고 큰아이가 반대했다.

“자, 봐라” 나는 말했다. “이 아빠가 비행기 표를 샀어. 이 아빠가 음식값도 내고 있고, 기름값도 내고 있잖나. 아빠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아빠는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알았어요.”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이 말했다.

다음 날 우리는 418km를 운전했다. 세인트조지에 도착한 우리는 성전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도 가고,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의 겨울 집도 가 보았다. 또 그곳의 태버나클도 방문했는데, 나는 스노우 회장님이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에게 연설하신 바로 그 연단에서 잠깐 가족에게 말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도시를 걸으며 사람들을 지켜보았고

그들과 만났다. 그들은 보통의 충실한 후기 성도들처럼 보였다.

나는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칠레에 돌아오고 나서,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내가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을 그전에 이미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내 직업과 교회 부름 때문에 나는 칠레 전역을 두루 돌아다녔다. 나는 칼라마에서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청년 독신들을 보았다. 라세레나에서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들과 일찍 교회로 오는 헌신적인 부모들을 보았다. 안토파가스타에서는 옴은 일을 위해 매일 분투하는 후기 성도들을 보았다. 바에나르, 코피아포, 칼데라, 토코피아와 다른 도시에서는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한 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회원들을 보았다.

순종하고 인내하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을 볼 때면,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바로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이로구나.” ■

클라우디오 곤살레스, 칠레 안토파가스타

**충** 실한 후기 성도들을 볼 때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바로 세인트조지의 선한 사람들이로구나.”



## “실은, 제가 몰몬이에요”

버스에서 막 자리에 앉는데 한 남자가 통로 건너편에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영혼이 참 아름다우시군요.”

내가 놀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한 번도 영혼에 대한 칭찬을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맙습니다.”라고만 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속한 종교 단체에서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계속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지 조언을 해 주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우리는 둘 다 내릴 준비를 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마디를 했다. “다만 몰몬들 이야기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 남자는 내 얼굴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나의 종교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 처음에 든 생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못 들은 체하는 것이었다. 교회 회원이라고 말하면 그가 부정적으로, 혹은 심지어 거칠게 대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경전 구절이 하나 떠올랐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나는 나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증인으로 나서지



내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않는다면 내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실은 제가 몰몬이에요.”

그 남자는 나를 뻔히 쳐다보았고 나도 그를 마주 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웃으며 자기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나도

웃었고, 우리는 각자 갈 길로 갔다.

오늘까지도 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기쁘다. 교회 회원으로 나서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무척 겁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행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다. ■

애비 손, 미국 유타주



하다가 말다가 하긴 했지만, 주차장 달리기는 3년 동안 계속되었다.

## 교회로 달려가기

**달**릴 곳을 찾던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교회의 주차장에서 달려 보기로 했다. 조명이 있고 바닥이 포장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건물 주위를 열 바퀴에서 열다섯 바퀴 정도 돌면 내가 목표하는 4.8킬로미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다가 말다가 하긴 했지만, 주차장 달리기는 3년 동안 계속되었다. 교회 예배나 활동이 있는 시간에 뛰기도 했기 때문에 이따금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보기도 했다.

누군가와 교회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몇 번 받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혹시 사람이 있는지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내가 교회 건물로 들어갔을 때 선교부 회장님과 접견을

마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았다. 나는 내 소개를 했고 우리는 교회 로비에 앉았다. 그곳에서 선교사들은 나에게 첫 번째 복음 토론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선교사들과 계속해서 만났다. 내가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 워드 회원들은 나를 사랑으로 맞아 주었고, 우정을 보이고 격려를 해 주었다. 나는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영의 느낌을 받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2001년 11월, 나는 서른여섯 살의 나이에 침례를 받게 되었다.

내가 교회 주차장에서 달리기로

결정한 것이 당시에는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는 일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가장 큰 축복들을 얻게 되었다. 바로,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아내 제니퍼를 만났으며,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성전에서 아내와 함께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해 보기 바란다! 그 사람이 워드의 새로운 회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

대니엘 알 톰슨, 미국 캘리포니아주

## 듣고 싶지 않았던 권고

**남**편과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처음 3년은 힘들었다. 수익은 나지 않았고 부채만 늘어났다. 열심히 일했지만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 시기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되었다.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 12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몹시 아프게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당시 우리는 돈이 없었다. 차는 이미 처분했고 설상가상으로 자격 미달이 되어 건강보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어떤 공격적인 형태의 암이 적어도 5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진단을 받았다. 심각한 상태였고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그 비싼 치료를 받을 만한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과 함께 감독님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이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설명했다. 감독님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도움을 주기 전에 다른 길이 열릴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길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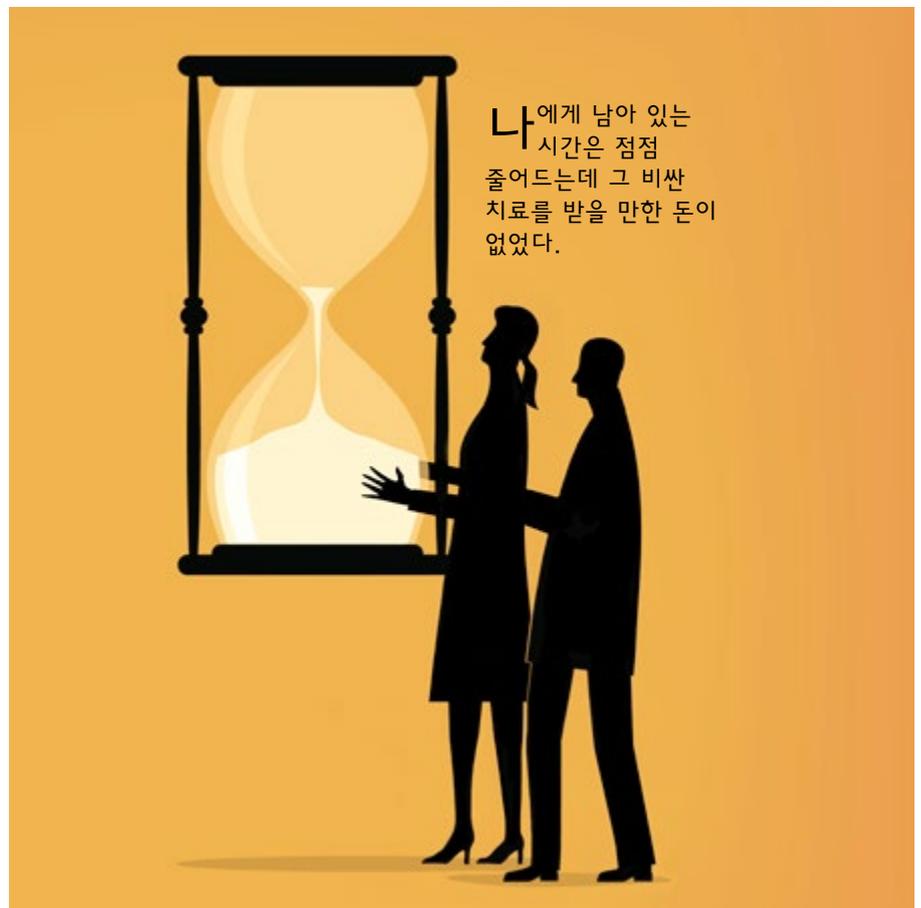
처음 감독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나는 화가 났고 그분을 원망했다. 감독님과 주님 모두 나를 버렸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었고 감독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내가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독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는 위로를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부부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필요한 검사들을 받았고 돈은 없었지만, 수술 날짜를 잡았다. 수술 바로 전날 우리 사업체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의료비를 전액 지불했다.

왜 감독님이 도움을 주기를 주저했는지가 명확해졌다. 내가 귀중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영감에 따라 행동하신 것이었다. 그 경험에서 나는 길이 답답하고 무서워 보이는 때에도 구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얻었다. 나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권고를 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한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

익명,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 세 명의 현대 개척자 이야기

세라 키년

**나**는 호주 멜버른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국제 학생들이 다니는 와드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 개척자들에 대해 배울 때,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들은 거의 모두 새로운 회원이었고 북미 평원을 가로지른 조상을 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국제 학생들이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몇몇은 초기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그 개척자들처럼 이 국제 학생들도 새로운 개척자였으며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을 했다. 어떤 회원들의 고향에서는 교회의 규모가 아주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새로운 종교 유산을 만들고 있는 현대의 개척자들이었다.

현대의 개척자 대열에 들어선 세 개종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을 공경하기**  
나미 찬, 대만 타오위안

**나**의 가족과 대만에 있는 친척들 대부분은 불교를 믿는다. 어릴 때 설날이나 명절이 되면 조상들과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낼 준비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건 가족 전통이자 조상들을 기리고 가정에 평안과 번영을 가져오는 방법이었다.

친척 중 몇 분이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조상들의 무덤에서 예를 차리고 향을 피우는 청명절 축제 기간이 되었을 때, 기독교 친척들이 참여하지

**세 명의 청년 독신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과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않겠다고 말했다. 친척들은 십계명을, 특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출애굽기 20:3) 그전에 가족끼리 다른 종교들에 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날부터 우리 가족에게 기독교는 전통을 부수는



부정적인 종교로 비치기 시작했다.

내가 대학생일 때 길에서 후기 성도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보통 때 같으면 선교사들의 말에 아무 관심도 없었을 테지만, 그전에 했던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교사들을 만나는 동안 기도하고 물몬경을 읽기로 하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배우는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키워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침례받고 싶다는 말을 부모님께 하고 싶지 않았다. 선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부모님께 침례받고 싶다고, 그리고 선교 사업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화가 나셨지만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에게는 개척자 조상이 없지만 그들의 희생을 나는 이해할 것 같다. 전통을 포기하고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교회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선교 사업도 다녀왔지만 지금도 우리 가족은 내 결정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내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가족 역사를 하고 조상에 대해 조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을 공경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이 있었기에 나는 가족과 겪는 어떤 갈등이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을 통해  
기쁨을 찾음**  
해리 구안, 미국 유타주

**나**는 중국에서 자라면서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지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고 기독교 교리들이 굉장히 위안이 된다고 생각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나서는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몇 개월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고려하고 있던 몇몇 친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듣게 되었다. 내가 다니던 기독교 교회의 몇몇 학생들에게 후기 성도들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몰몬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그들의 모습에 놀랐다. 처음에는 그들의 충고를 따랐다. 하지만 일주일쯤 후에 소셜 미디어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그 말씀에서 홀런드 장로님은 교회 회원들이 다른 종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다. (“Faith, Family, and Religious Freedom”, [lds.org/prophets-and-apostles](https://www.lds.org/prophets-and-apostles) 참조)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영이라고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나는 결국 교회에 가게 되었고

후에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의 가르침, 특히 구원의 계획에 감동을 받았다. 내가 침례를 받기로 했을 때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나이라는 것에 수긍하셨다. 몇 개월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를 보기 위해 미국에 오셨을 때, 그분들께 복음에 대해 가르쳐 드릴 수 있었다. 두 분 다 침례를 받기로 하셨다.

복음은 나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주었고 곧 아내가 될 사람도 만나게 해 주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희생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모든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들을 위해  
길을 닦음**

브룩 킨키니, 미국 하와이

**나**는 열다섯 살 때 교회에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교회에 줄곧 참석하면서 신앙과 간증을



키워 왔었다. 비록 가족 중에서 나만 유일한 회원이었지만 나의 충실한 교회 친구들은 나를 사랑해 주었고 모범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

오래전의 개척자들과 달리 손수레를 끌고 얼어붙은 평원을 가로질러 걸어야 할 일은 없었다. 사실 교회에 들어올 때 어려움은 많지 않았다. 물론 몇몇 친구들을 잃었고 교회와 세미나리에 혼자 가고 참석해야 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지금까지 미쳤고 또 앞으로도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면, 그건 내가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 침례받기로 한 것, 성전에서 인봉되기로 한 것, 그리고 성약에 충실하기로 한 내 결정은 나의 아름다운 세 자녀는 물론 미래 세대들의 삶에 까지 영원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척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닦는 것이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됨으로써 받는 많은 축복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데려올 수 있는 것이다. 하와이 마우이에 사는 열다섯 살 소녀의 침례나 숲속에서 했던 열네 살 소년의 기도와 같은 작은 일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현대의 개척자라는 말은 개종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미래 세대들을 위해 충실함의 유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누구나 개척자가 될 수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 개척자들의 유산을 간직함

“저는 초기 교회 개척자들의 신앙과 용기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시 제 조상들은 바다 건너에 살고 있었습니다. ... 그들 중에는 ... 평원을 횡단하여 여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이 개척자들의 유산을 저의 것으로 여기고 감사와 긍지를 느낍니다.

“똑같은 기쁨으로, 저는 세계 전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개척자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인내와 신앙,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왕국의 위대한 후기 성도 찬송가 가사로 덧붙일 수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선조의 신앙”,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70쪽.



# 단절된 느낌이 드는가? 속도를 늦춰 보자

샬럿 라카발  
교회 잡지

**긴** 줄에 서서 기다리는 것을 거미나 뱀만큼 싫어한다고 말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든, 교통 체증에 갇히는 것이든,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든, 우리는 기다림을 참 싫어한다.

다행히도, 기다림은 실제로 악몽을 꾸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되고 있다. 악몽을 꾸는 것이 두렵기는 해도 매일 악몽을 꾸지는 않는 것처럼, 기다리는 일이 싫기는 해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이 모든 것의 속도를 너무 올려놓는 바람에 우리의 집중 시간은 금붕어보다도 더 짧아졌다.(이건 사실이다.)<sup>1</sup>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길 듯하면, 우리는 보통 무선 기기들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한다.

기술이나 효율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와 끝없는 방해 요소들이 우리를 더 중요한 것들로부터 떼어 놓고 있을지도 모른다.

## 듣기 좋은 경전 구절 그 이상

얼마 전에 나는 영적으로 떠도는 상태였는데, 왜 그런지 나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교회에도 가고, 기도도 솔솔 하고, 경전도 슬쩍슬쩍 보고 있었다. 가끔 영적인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단절된 느낌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느낌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

마치 *가만히*라는 단어가 색칠되고 줄도 그어진 채로 진하게 표시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옳은 것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얇은 집중력으로 너무 빠르게 행하고 있었다. 산만한 태도로 복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의 산만한 태도로 참여한다면, 그 어떤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깊은 교감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갈구하는 거룩하고 충만한 지식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가만히

아무도 “난 기다리는 게 좋아”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있어야 했다.

그 영감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 자, 속도를 줄여 보자 ...

니파이는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임이니”라고 가르쳤다.(니파이전서 10:19)

이 성구를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는 데는 *부지런히* 찾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목적을 갖고 꾸준히 행하는 습관이다. 한 번의 인터넷 검색이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그 비밀들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펼쳐지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시간이 중요하다! 상고하고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얻는다. 그리고 그 영의 권능을 통해 응답이 온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은 명상, 즉 "종교적인 주제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반영"은 "가장 ... 거룩한 문의 하나로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sup>2</sup> 우리가 속도를 늦출 때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된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생각들을 뛰어넘어 거룩한 것들과 연결된다. 우리는 그 문이 필요하다. 우리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

###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했다. 경건한 자세와 내가 하는 기도 말을 듣는 것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인쇄된 경전으로 공부하고 손으로 직접 메모를 쓰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추가된 노력과 시간은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할 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과 영이 "속에서 역사"하고 그 간증의 씨가 "뿌리를 얻[고]...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엘마서 32:27, 37)

우리는 자판을 몇 번만 두드리면 거의 어떤 정보든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이해와 개심은 시간과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속도를 늦추고 복음에 헌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누군가가 떠먹여 주는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때, 우리는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참여를 없애 버리는 것이다. 영과 연결될 기회를 지워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더 쉽게 해 주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과 발전은 당연히 받아들여도 괜찮다. 하지만 그것들과 함께 오는 산만한 삶과 얇은 생각들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다리는 시간을 싫어하는 대신, 그 시간을 속도를 늦추고 명상하고 영과의 연결 고리를 더 강하게 하는 기회로 생각하자. ■

### 주

1. Leon Watson, "Humans Have Shorter Attention Span Than Goldfish, Thanks to Smartphones," *The Telegraph*, May 15, 2015, telegraph.co.uk. 참조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11), 31~2쪽.



어려운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

# 세 가지 유용한 원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신앙을 강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복** 음이나 교회에 관해 질문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질문이 있다는 것이 신앙이 충분하지 않거나 간증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닐지 걱정한 적이 있는가?

질문은 지상 생활의 여정에서 정상적이고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은 질문을 통해 더 큰 통찰력과 신앙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여러분의 태도, 동기 및 과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미나리 시간에 배우게 될 다음의 세 가지 교리 익히기 원리는 여러분을 영원한 진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 1. 신앙으로 행한다

질문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그분께 답을 구하겠다고 마음먹음으로써 신앙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응답을 주신다.(니파이후서 28:30) 의심이 들 때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간증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대해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이 의심하는 바를 의심하십시오.”<sup>1</sup>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sup>2</sup>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2. 복음의 관점에서 개념과 질문을 검토한다

구원의 계획과 구주의 가르침이라는 맥락에서 질문을 고려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진리에 관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의 질문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진리에 맞을 내리는 것은 ...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오는 평안을 주고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지식을 알려 줄 것입니다.”<sup>3</sup>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기쁨과 빛을 가로막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복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일들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영원한 시야를 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sup>4</sup>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3. 주님이 정하신 지식의 출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다. 여기에는 성신, 경전, 가족, 교회 지도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해 줄 교회 밖의 자료까지 포함된다. 응답을 구할 때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해야 한다. 신뢰할

만한 출처는 신앙을 강화하고 성신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얻는 풍요로운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활용하십시오.”<sup>5</sup>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좋은 책과 유익한 원천에서 진리를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유익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sup>6</sup>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여러분도 직접 해 본다!

다음의 예들은 위의 원리들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보여 준다. 이러한 예들은 완벽한 답이 아니라, 청남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예시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 답을 찾고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의문을 가진 주제에 관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한다면 좋을 것이다.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신앙으로 행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복음의 관점에서 개념과 질문을 검토한다:**

선택의지는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상으로 내려보내셔서 시련을 경험하게 하고, 결정을 내리게 하며, 육신을 얻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은 때로 사람들이 그릇된 선택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생긴 시련과 달리, 자연재해, 장애 및 죽음과 같은 시련은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주님이 정하신 지식의 출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구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이유에 관해 경전과 현대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교리와 성약 121:7~8)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당면한 어려움 속에 도움도 없이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sup>7</sup> 나는 내가 겪는 모든 시련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를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시련 중에 평안과 힘과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다.(앨마서 7:11~12 참조)



## 성신이 내게 말씀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앙으로 행한다:** 때로는 영감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경전을 읽음으로써, 내가 그분의 권고를 듣고자 계속 노력한다면 영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 복음의 관점에서 개념과 질문을 검토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신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도록 영감을 얻게 하신다. 선한 일을 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나 자신의 생각처럼 들리더라도 영에게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정하신 지식의 출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구한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진정으로 그 축복을 열망하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으로 계시의 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sup>8</sup>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영을 불러오기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서는 내가 답을 찾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은 영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 결론

질문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는 아니다. 질문은 보통 간증이 커 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신앙으로 행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개념과 질문을 검토하며, 주님이 정하신 출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유용한 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신앙을 얻을 수 있다. ■

###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2013년 10월 연차 대회.
2. 제프리 알 홀런드, “내 안에 거하라”, 2013년 4월 연차 대회.
3. 맬린 에이치 옥스, “As He Thinketh in His Heart”(교회 교육 기구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영적 모임, 2013년 2월 8일) [lds.org/prophets-and-apostles](http://lds.org/prophets-and-apostles)
4. 케리 이 스티븐슨, “영적 일식”, 2017년 10월 연차 대회.
5. 리차드 지 스코트, “영적인 인도를 얻음”, 1993년 10월 연차 대회, 번역 수정
6.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진리는 무엇인가?”, (교회 교육 기구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영적 모임, 2014년 1월 12일), [broadcasts.lds.org](http://broadcasts.lds.org).
7. 제프리 알 홀런드, “천사의 성역”, 2008년 10월 연차 대회.
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2011년 4월 연차 대회.

##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한 청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동영상 “영적인 지식을 얻음: 매디슨의 이야기”를 [lds.org/go/71853](http://lds.org/go/71853)에서 시청한다.



그렇게나 까다로운 분을  
어떻게 돌봐 드릴 수  
있을까?

# 봉사하기 힘들었을 때

라이카 티 발데즈

**내** 성격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웠던 부분은 “내 알 바 아니야”라는 무관심한 태도였다.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냉담했고 참을성도 없었다.

그런데 방학 동안 일흔여섯 되신 친할아버지를 돌보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리가 “다디”라고 불렀던 할아버지는 뇌졸중을 앓으셨고 몸의 한쪽이 마비된 상태였다. 가족들이 내게 두 달 동안 할아버지를 돌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 목욕, 약을 준비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했다. 할아버지가 매일 운동 삼아 산책을 하는 것도 도와 드렸다. 할아버지는 거동이 힘들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분 곁에 있었고, 목욕하실 때와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18세 소녀인 나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이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할아버지는 참 까다로운 분이였다. 교회 회원이 아니어서 원칙도 나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한이 많은 분이셨고 언제나 소리를 질렀으며, 절대 웃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나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계셨다. 이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좋은 유대감을 갖기가 어려웠다.

처음에는 내가 떠안게 된 일을 피하려고 별수를 다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태도를 바꾸고 최선을 다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새로운 태도로 일주일을 지내자, 다디를 돌봐 드리는 일이 기쁜 일이 되었다. 인내심이 커졌고, 할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과 좋은 추억을 쌓는 기회로 생각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도 바뀌셨다. 찡그리기만 하던 이 노인이 미소를 띤 온화한 할아버지가 되셨다. 심지어 EFY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하게 되셨다!

어느 날 밤 나는 할아버지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들여다보았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셨다. 나는 이 변화를 보며 매일 영감을 얻었다.

다시 개학을 해서 나는 이제 대학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한 달에 두 번씩 가족과 함께 다리를 방문한다. 우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께 노래도 불러 드린다. 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다리를 돌봐 드릴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드린다. 덕분에 내가 무엇을 베풀 수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랑은 매우 강력한 것이다. 그것은 나와 다디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나는 희생과 연민의 의미를 배웠다. 진실로, 자애는 모두의 마음을 밝힌다! ■

글쓴이는 필리핀 산티아고에 산다.



### 가족에게 하는 봉사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은 여러분과 영원히 이어질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상황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그렇다면 더욱, 여러분은 봉사하고 복돋아 주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가족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꿈꾸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보니 엘 오스칸, 전 본부 청년 회장, “우리 앞에 놓인 필요 사항”, 2017년 10월 연차 대회.



**1.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활용한다.**(교리와 성약 52:9 참조)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주된 이유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은 경전 안내서(scriptures.lds.org)와 연차 대회 말씀(gc.lds.org에서 주제별 찾기)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주제를 연구해 볼 수 있다. 말씀에서 사용하려는 성구와 인용문을 반드시 이해하도록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에게 도와 달라고 한다.

**2. 영을 초대한다.** 말씀을 할 때 영을 지닐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방법이다. 영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증거해 준다.(교리와 성약 42:14 참조) 여러분이 참되다고 믿는 것을 간증함으로써 성찬식 모임에 영을 초대한다.

**3.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과 유대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듣기 좋아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말씀 주제의 복음 원리와 관련하여 재미있거나, 독특하거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한다!** 말씀을 쓰고 나면, 혼자서 소리 내어 연습하고 그런 다음,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연습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지,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감독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미리 예배실 연단에 올라가 말씀 연습을 해 볼 수도 있다!

## 말씀을 잘 하기 위한

# 7가지

## 조언

곧 성찬식 모임에서 말씀을 하는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활용해 본다.

세라 헨슨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찬식 모임에서 말씀을 하라는 지명을 받으면 정말 긴장이 된다. 말씀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걱정하는 점은 이런 것이다. “말씀이 너무 지루하면 어찌지? 말씀할 내용을 잊어버리면 어찌지? 단어를 틀리게 말하면 어찌지?”

## 말씀 전하기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는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닐까 바란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것으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말하기 실력을 향상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 다음 일곱 가지 조언을 살펴보자.

**5. “정말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와 같은 말로 말씀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어떤 형태로 하든,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감독님이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말씀을 안 해도 될 핑곗거리가 없나 궁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제발 제 말씀을 듣지 마세요.”라고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도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준비한 주제에 대해 열의를 가져라!

**6. 명확하게 말한다.** 긴장하면 말이 너무 빨라지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기 마련이다. 나도 전적으로 이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말씀을 할 때는 회중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도록(마이크를 사용하더라도 소리가 너무 작을 수 있다)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준비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7. 고개를 든다.** 의사소통을 할 때 눈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행동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대화에 집중하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말씀할 때 회중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꼭 마주칠 필요는 없지만, 자주 고개를 들어 예배당 앞이나 뒤를 본다면 여러분은 훨씬 흥미를 끄는 연설자가 될 것이다. 말씀 원고만 쳐다보지 말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수리 대신 여러분의 미소를 보고 싶어 한다.

이 일곱 가지 조언을 다 활용하더라도, 여전히 실수를 하거나 세 번째 줄에서 누군가 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형편없는 연사라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을 약간만 벗어나도, 쉽사리 긴장하거나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영을 초대하는 한, 말을 더듬거나 할 말을 조금 잊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분의 자녀들이 복음에 관해 더 많이 배우도록 돕고 있다!

여러분이 믿는 바를 가르치고 간증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이다. 성전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신권 의식(성스러운 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성약(성스러운 약속)을 맺음으로써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을 위해서도 성전 의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살아 있을 때 합당한 권세로 침례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자신의 조상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침례받을 수 있다. 성인들은 엔다우먼트와 인봉(성전 결혼 등)을 포함하여 다른 성전 의식에 참여한다.



## 조상을 위한 침례와 확인

침례와 확인은 지상에 살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필수적인 의식이다.(요한복음 3:5 참조)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복음에 관해 듣거나 이러한 의식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방편이 마련되었다. 성전에서는, 교회의 합당한 회원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침례를 행한다. 영의 세계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며(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행해진 의식을 받아들일지 선택한다.

##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침례 성약을 지키는 것이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

.....

성전 의식을 받으려면 이 외에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가?

.....

.....

.....

여러분의 성전 추천서는 유효한가? 성전 추천서가 없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약속을 잡을 수 있다.

.....



처음으로 성전에 가는 것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ds.org/temples/inside-temples?lang=kor>에서 “성전 내부”를 살펴본다.



## 성전: 우리 신앙의 상징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상징하며, 사후의 삶을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전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공과, 모든 [진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기 위해 쏟는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리셀 엠 벨슨 회장,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41쪽.

## 엔다우먼트

엔다우먼트라는 말은 “은사”를 의미한다. 성전 엔다우먼트는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이다.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교리와 성약 95:8) 포함한 특별한 축복을 부여하신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두 가지 의식, 즉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았다. 성전 엔다우먼트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받게 된다. 먼저 예비 의식을 받는데, 이 의식에서는 상징적으로 간소하게 “씻김”을 받아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신성한 유산과 영원한 잠재력에 관한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엔다우먼트의 나머지 의식을 받는데, 창조,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속죄를 포함하여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엔다우먼트를 받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한다.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모두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진다.

## 인봉

가족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에 있다.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묶는 의식은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의식은 신권이 지닌 인봉의 권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권세이다.(마태복음 16:19 참조) 성전 인봉을 통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는 자신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함으로써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다. ■

# 안식일

안식일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기뻐할지  
몰랐다.

엘리사 닐슨

**경** 전에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며, 즐겁고 기쁜 날이며,  
안식의 날이며, 축하해야 할  
날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몇 년 전  
십 대 후반이었을 때, 일요일만 되면  
마음이 우울해졌다. 평안을 느끼는 대신  
압박감이 느껴졌다. 기쁨 대신 슬픔이,  
희망 대신 죄책감이 느껴졌다. 나는  
심각한 안식일병을 앓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마다, 이불 속에 숨어  
곤혹스러울 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오늘이 정말 일요일이고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교회에서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했다. 성찬식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세어 보곤 했는데 첫  
번째 연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까지도  
그 셈은 끝날 줄을 몰랐다. 나머지  
교회 모임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싸움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느낀 것에  
대한 새로운 후회로 죄책감이 심해졌다.

일요일 오후도 거의 비슷했다.  
나는 과거에 내렸던 선택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미래에 하게 될 선택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슬픔을 느끼곤 했다. 주의를  
돌릴 학교 활동이나 과외 활동이

없었더라면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201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읽고, 또다시 읽었다. 그 후에,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 비참함 대신 안식일에  
느껴야 할 평안을 구하고 안식일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sup>2</sup> 그리고  
응답이 왔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

나는 자신의 불행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진 출처: 데이비드 스토키



# 평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맺고 있는 관계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했던 실패를 곱씹기보다는 시간을 내어 그분들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깊이 생각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믿고 있는 것,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형제이며, 그분은 나를 위해 속죄하셨다. 그분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들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나는 이러한 간증에 대해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 성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초점을 바꾸자, 내가 성찬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주 오랫동안, 나는 성찬식 시간을 나 자신에게 벌을 주는 시간으로 대했다. 하지만 성찬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찬은 우리의 성약을 새로이 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다시 깨끗하게 될 기회이다. 신앙을 지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의식과 성약에

집중하면서, 나는 내가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성약을 지키며, 주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 평안을 얻었음을 깨달았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성찬식 동안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하자 내 마음에는 또 다른 선물이 찾아왔다. 구주께서 내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신 까닭에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치유도 받을 수 있었다.(앨마서 7:11~12 참조) 나는 그분의 속죄와 성찬을 통해 압박감이나 슬픔이 아닌 평안과 힘을 안식일과 평일에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평안을 얻었다. 구주께서는 일요일뿐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

## 인내심을 가지고 신앙을 행사한다

이 모든 일이 한 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일은 힘든 일이었고, 시간이 걸렸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로마서 8:25) 나는 계속해서 집중했고 안식일에 기쁨을 느끼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결국 나는 거룩한 날에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안식일병에 빠져들 테니까 말이다. 나는 매주 구주와 안식일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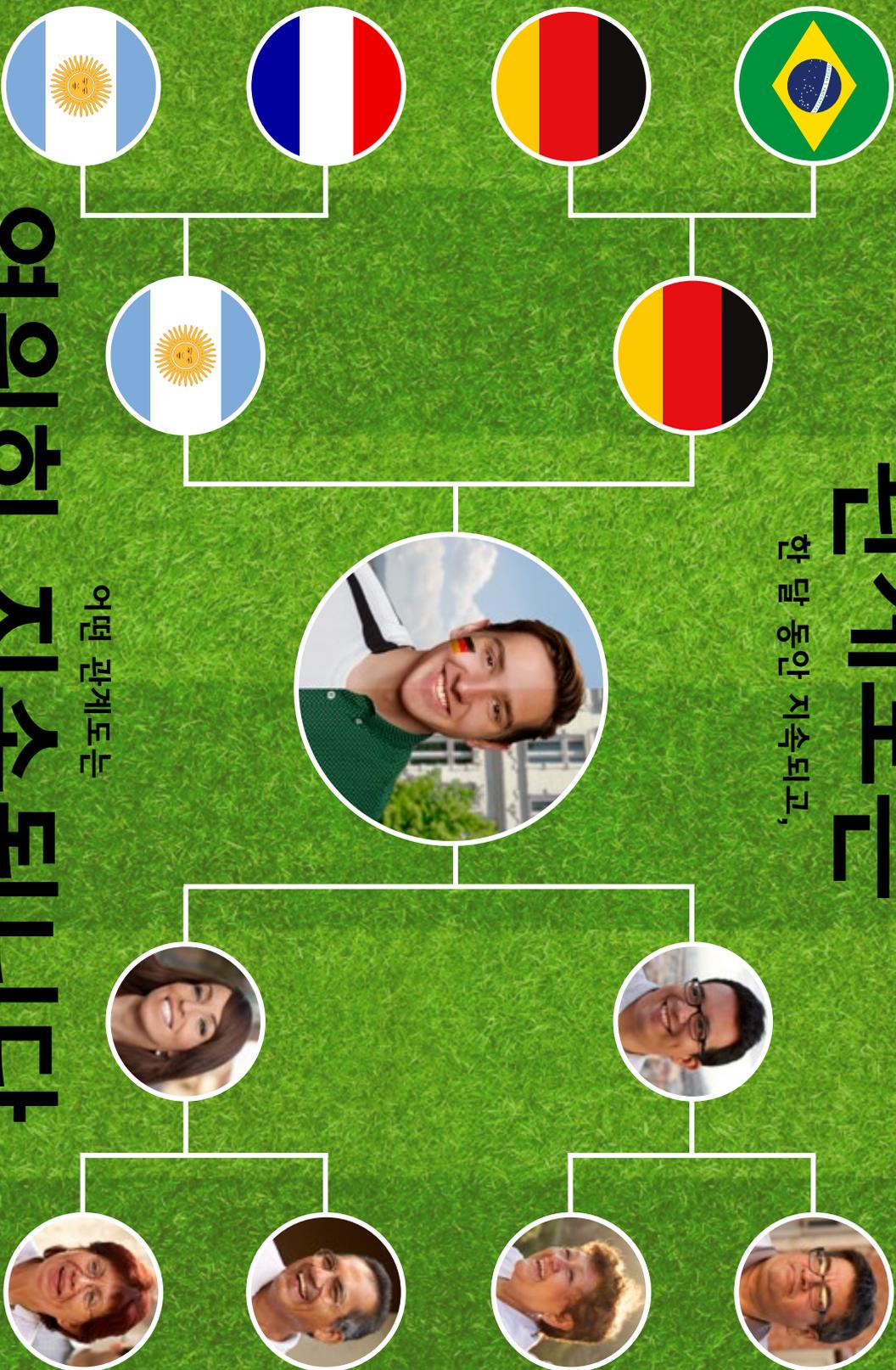
1. 출애굽기 20:11; 출애굽기 31:15; 레위기 23:32; 이사야 58:13; 교리와 성약 59:13 참조
2.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야호나, 2015년 5월호, 129~132쪽 참조

# 어떤 관계도는

한 달 동안 지속되고,

# 영원히 지속됩니다.

어떤 관계도는



#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지니기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 떨어진 것으로, 혹은 성취할 수 없는 목표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격을 갖추고 범법을 완전히 회개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감독님과 협력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의로운 요건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는 기꺼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불완전함이나 죄 때문에 자신이 성스러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이 사실은 경전에 매우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이사야 1:18)

“내가 ...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예레미야 31:34)

저희가 보장하건대, 의로운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행복과 성취감, 그리고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인 및 청소년 회원 여러분,

성전 추천서를 위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이 합당함을 스스로 입증하십시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복된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고 성신의 성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그에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저희가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는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며,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해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전에 가기 위해 합당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sup>1</sup>

우리 각자가 구주를 공경하고 그분의 성스러운 성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변화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고, 주님과 그분의 교회가 이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2011년 4월 연차 대회.



1940년 9월 8일  
유타 로건에서  
출생.

1960년에서  
1962년까지,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와  
동반자로 봉사하기도 함.



2007년 10월 6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음.



고등학교 시절,  
미식축구와  
농구 챔피언십  
경기에서 땀.

1962년  
11월 30일  
유타 로건  
성전에서  
메리 캐디와  
결혼.



슬하에 세 자녀와  
열한 명의 손주가 있음.



# 이사벨의 여행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1992년 브라질

**이** 사벨은 실눈을 뜨고 질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이사벨은 마른 입술을 핥았어요.

부모님은 스테이크 회장인 산티아고 회장님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배에서 나는 모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이사벨은 자신들이 여행하는 목적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가족 인봉을 받으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들려주셨던 상파울루의 아름다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벨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그곳에 간다는 것이 거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사벨의 가족은 아마존의 깊은 우림인 마나우스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성전까지는 3,219킬로미터도 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후에 산티아고 회장님이 성전까지 가는 6일간의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100명도 넘는 회원들이 가겠다고 했어요. *마망이*(포르투갈어로 엄마- 율간이)께서는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 할 거야. 하지만 희생은 축복을 가져다주지.”라고

이사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갑판 위의 그물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찬송가를 부르고 경전을 읽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강물은 더러워서 마실 수 없는데 말이지요.

*마망이*가 이사벨의 팔을 잡으시며, “산티아고 회장님이 모두들 모이라고 하셨단다. 우리는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할 거야.”라고 하셨어요.

이사벨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기도가 끝나자, 시원한 공기가 그녀의 목을 간지럽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사벨은 뱃전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잿빛 먹구름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사벨은 입을 벌려 혀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았어요.

“서둘러!” *마망이*께서 소리치셨어요. “양동이나 후라이팬, 뭐든지 가져오렴!”

이사벨은 후라이팬을 들고 빗속에 내밀고 있었어요. 빗물을 최대한 많이 담고 싶었으니까요. 모두들 함께 일하며 웃고 축하했어요. 금세 그들은 비를 맞으며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폭우는 15분가량 계속되었어요. 필요한 만큼 물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기적이었어요.

이 여행은 길고 위험하겠지만  
성전에 가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귀중한 축복**

“성전의 축복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 “성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93쪽.



곧 배가 물에 닿았어요. 하지만 아직 2,414킬로미터를 더 가야 했죠. 남은 길을 가기 위해 모두 버스를 탔어요. 며칠 동안이나 버스는 울퉁불퉁한 길을 흔들거리며 달렸어요. 한번은 버스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버스 앞쪽의 바람막이 창유리가 깨지고 말았지 뭐예요. 무덥고 붐비는 도시를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적어도 심하게 울퉁불퉁하지는 않았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마을이나 도시에서 잠시 멈추면 모두들 늘 감사했어요. 그들은 교회 건물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 지역 교회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첫날 그들이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자 이사벨은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봐 걱정되었어요. “걱정하지 마.” *마망이*께서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길 보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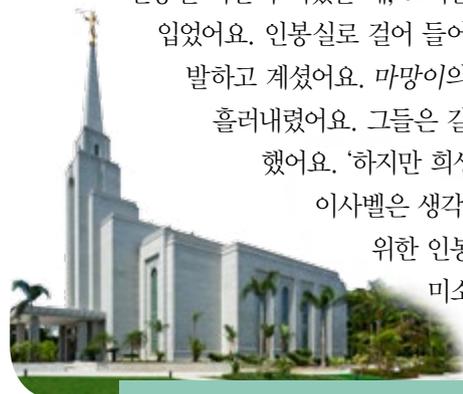
지부 회장님과 교회 회원들이 길 건너편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희생은 축복을 가져다줍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이사벨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망이* 말이 맞았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사흘 동안 달린 후, 마침내 상파울루에 도착했어요. 이사벨은 버스가 커브를 돌 때 더 잘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모두 탄성을 질렀어요. “오

템플로!(성전이다!) 오 템플로!” 줄지어 서 있는 야자수 너머로 높고 날씬한 성전 첨탑이 솟아올라 있었어요. 햇살은 황금빛 천사 모로나이를 비추고 있었죠.

모두 기진맥진해 있었지만, 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당장 인봉되기를 바랐어요. 이사벨의 가족이 인봉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얀 옷을 입었어요. 인봉실로 걸어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환한 빛을 발하고 계셨어요. *마망이*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들은 길고 위험하기까지 한 여행을 했어요. ‘하지만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라고 이사벨은 생각했어요. 그녀는 영원한 가족을 위한 인봉을 받으려고 자리를 잡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주에 산다.



2012년, 이사벨이 성장한 브라질 마나우스에 성전이 지어졌다. 그 무렵, 이사벨과 다른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와서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고 그들이 했던 여행을 떠올렸다.

제나 코포드  
실화에 근거함.

“나에겐 가족이 있네. 소중한 내 가족”(어린이 노래책, 98쪽)

“앤 드루! 버스 왔다!”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앤드루는 문밖으로 달려 나갔어요. 앤드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에이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에이미는 너무 어려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앤드루는 학교가 좋았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담임이신 김볼 선생님도 좋아했어요.

오전 쉬는 시간이 끝나자 김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는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오는 날이에요. 부모님께 학교에 오실 때 직업과 관련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직업 이야기를 듣는 신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앤드루는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오는  
날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훌륭하신  
조부모님



앤드루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부모님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엄마에 대해서도 기억나는 게 많지 않았어요. 앤드루가 어렸을 때 떠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도 잘 몰랐어요.

앤드루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토니네 엄마는 소방관이었고, 제시카네 아빠는 동물원에서 일하셨어요. 모두들 제시카네 아빠가 교실에 월숭이나 나무늘보를 데려오시기를 바랐어요.

“너희 부모님은?” 토니가 앤드루에게 물었어요.

앤드루는 자기 발을 내려다봤어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

앤드루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분들의 직업은 그다지 멋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담요와 아기 옷을 파셨어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푸드트럭을 모셨고요. 앤드루는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오는 날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날 밤 앤드루는 몰몬경의 첫 장을 읽었어요.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니파이전서 1:1)

앤드루는 생각했어요. ‘나는 부모님과 살고 있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걸.’

바로 그때, 에이미가 포근한 담요를 꺼안고 앤드루의 방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에이미는 담요를 들어서 앤드루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만들었어!”

“그래, 할머니가 너를 위해 그 담요를 만들어 주셨구나.” 앤드루는 살짝 웃어 보였어요.

앤드루는 할머니가 해 주신 좋은 일들을 모두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는 학교 가기 전에 아침도 만들어 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시고, 앤드루와 에이미와 함께 게임도 해 주셨죠. 할머니는 엄마 같았어요.

그리고 앤드루는 할아버지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앤드루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셨어요. 숙제도 도와주셨고, 또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빠 같았어요.

앤드루는 좀 더 활짝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학교에 모셔가는 것을 생각하면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나에게 훌륭한 부모님은 안 계시지 모르지만,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시. 이긴 특별한 이야기.’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오는 날에, 앤드루는 교실 뒤에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토니네 엄마는 소방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모두에게 헬멧을 써 보게 해 주셨죠. 제시카의 아버지는 동물원에서 거북이를 가져오셨어요.

“앤드루, 네 차례야.” 김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앤드루는 할아버지와 함께 교실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큰 트럭을 운전해서 음식을 배달해요.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앤드루가 올라다보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런 후 할아버지는 트럭 운전 관련 이야기해 주셨어요. 일터에서 가져온 간식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앤드루 반 아이들은 할아버지 직업에 관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앤드루는 할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앤드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에이미는 가족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가족이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드디어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 제인 맥브라이드

실화에 근거함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요”(히라맨서 10:7)

“가족은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니?” 미아가 물어봤어요. 미아는 보드에서 게임 말을 움직였어요. 미아와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 조이는 조이네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가족은 영원해”라고 쓰여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미아는 그 말이 좋았어요.

“그건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 한 가족이라는 뜻이야.” 조이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카드를 내려놓고 게임 말을 옮겼어요.

미아는 방을 둘러봤어요. 평범해 보였어요. 소파, 탁자, 베개,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이의 집은 자기 집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너한테는 영원한 가족이 있니?” 미아가 물어봤어요.

조이는 게임판에서 얼굴을 들어 미아를 쳐다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성전에서 결혼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 집에 있으면 다른 느낌이 드는 거야?” 미아가 물어봤어요.

조이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다. “다르다고?”

미아는 조이네 집에 있을 때 받는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것은 행복하고 따뜻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실없는 소리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미아는 “아니야. 계속 게임이나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미아는 조이가 말한 영원한 가족에 관해 계속 생각했어요. 미아는 조이네 집에 있을 때 받는 느낌이 좋았어요. 미아네 가족은 며칠 후면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로 이사를 하게 될 거예요. 미아는 새로운 집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했어요.

미아는 이불을 여며 주시는 엄마께 “엄마, 조이네 집은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새 집에서 그런 느낌이 들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아는 자기가 엄마와 아빠, 또 남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도 영원하면 좋겠어요.”

엄마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그렇단다.”

다음 날 엄마는 조이네 엄마께 전화를 하셨어요. 엄마는

조이네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아내셨어요.

“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미아는 함께 짐을 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며 아빠는 “조이네 엄마가 교회를 찾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단다.”라고 하셨어요.

미아는 미소를 지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그들의 새로운 집은 조이네 집만큼이나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집이 정리되자, 미아네 가족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서로를 부를 때 모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했어요. 미아는 남동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갔어요. 노래를 부르고 경전을 읽는 게 좋았어요.

곧 젊은 여성 두 분이 미아네 집으로 왔어요. 그분들은 저스틴 자매님과 라모스 자매님이셨는데, 두 분 다 선교사셨어요. 그들은 미아네 가족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물문경에 관해 이야기해 줬어요. 미아는 복음에 관해 듣는 게 좋았어요. 동생들조차도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였어요!

미아는 라모스 자매님과 저스틴 자매님께 조이네 집에 관해 이야기해 줬어요. “조이네 집처럼 저도 영원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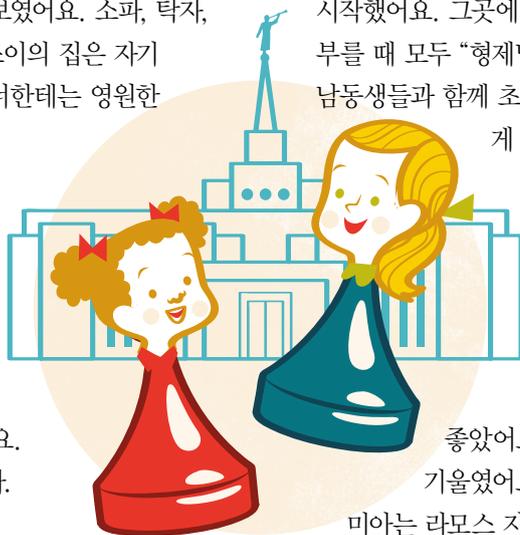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을 갖게 되기를 바라세요.” 라모스 자매님이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아네 가족은 침례받기로 했습니다.

조이와 그 가족이 차로 온타리오까지 먼 길을 와서 침례식에 참석했어요. 일 년 후 조이네 가족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미아와 미아네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받기 때문이었어요!

가족 인봉을 받는 날, 미아는 하얀 옷을 입은 가족들과 함께 성전 밖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입이 귀에 닿도록 활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미아는 마음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미아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야!”라고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란다.”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



# 친구와 선교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후안  
바우티스타이고,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을  
나누며 빛을  
비추어요.



## 제일 친한 친구

저의 제일 친한 친구 파쿰도와 저는 다섯 살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우리 둘 다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파쿰도를 교회 활동 모임에 많이 초대했죠.





### 파쿤도의 첫 번째 질문

한번은 파쿤도가 우리와 저녁을 먹다가, “너희 가족은 왜 항상 기도를 하니?”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과, 기도는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말해 줬어요. 파쿤도는 감동했어요!



### 가정의 밤

파쿤도는 제 동생 벤자민이 침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정의 밤에 왔어요. 파쿤도는 영을 느꼈고, 자기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빠가 파쿤도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들이 파쿤도의 가족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파쿤도와 그의 누나 오거스틴은 둘 다 침례를 받았어요! 파쿤도의 부모님도 교회에 오시지만, 아직 침례는 받지 않으셨어요.



### 파쿤도의 두 번째 질문

파쿤도는 우리 엄마께 제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만큼 자기도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될지 여쭙보았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가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한다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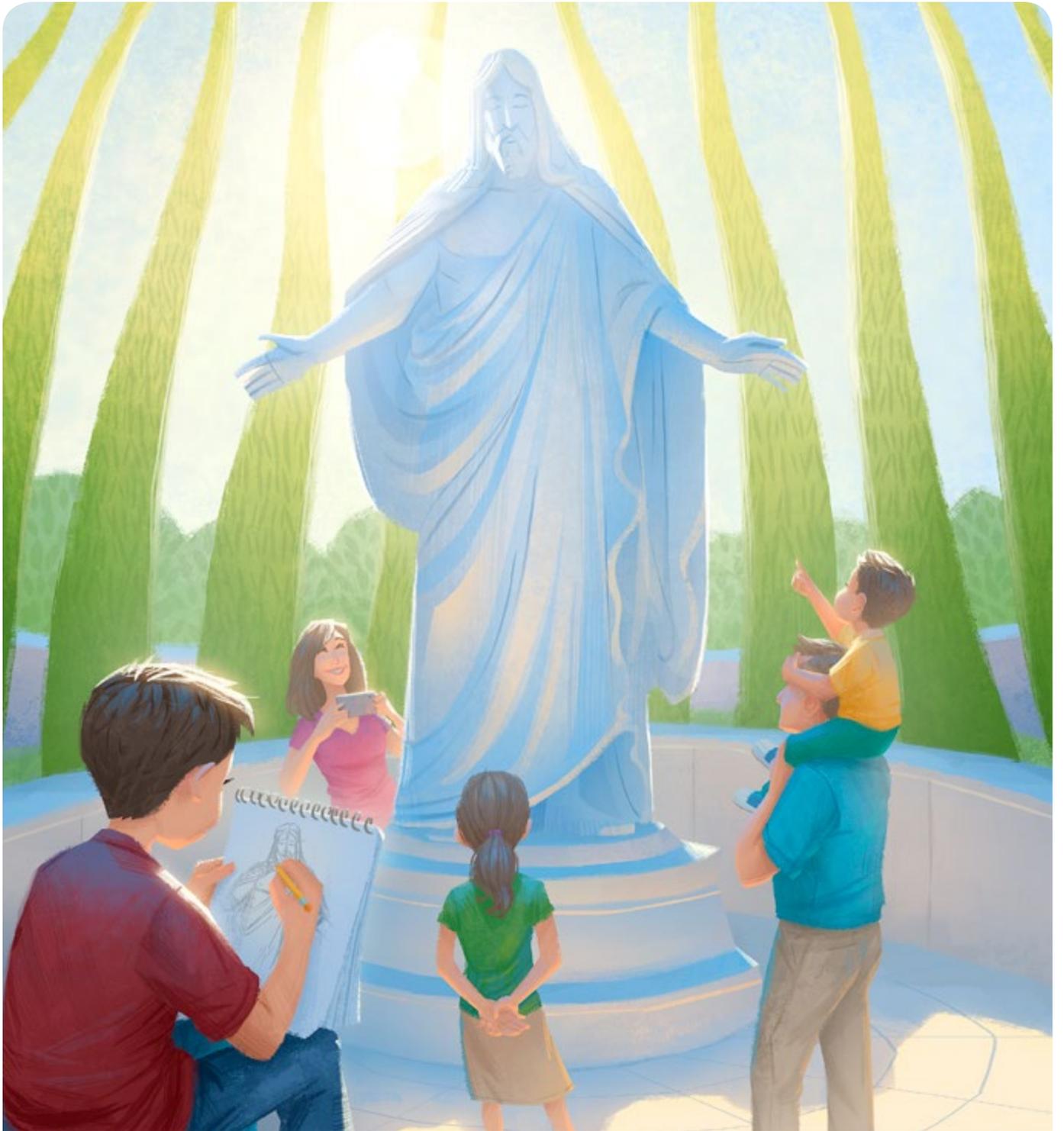
###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나요?

- 교회 활동 모임이나 가정의 밤에 친구를 초대한다.
- 친절과 사랑의 훌륭한 모범이 된다.
- 기도로 도움과 영감을 간구한다.

### 별을 보내 주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마태복음 5:16)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추나요? 별을 오려서 그 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 주세요. 부모님께 여러분의 별 사진을 이메일 [iahona@ldschurch.org](mailto:iahona@ldschurch.org)로 보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간증,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로서의 그분의 역할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 Gospel Perspective”(브리검 영 대학교-하와이 영적 모임, 2017년 9월 19일), [devotional.byuh.edu](http://devotional.byuh.edu)에서 발췌함.

몰몬경  
**독서  
모임**

**몰몬경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세요!**

혼자 읽거나,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읽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고 있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게 된 점이나 몰몬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려 주세요.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를 통해 제출해 주세요. (“기사 제출” 클릭)



**이달의 경전 구절:**

**힐라맨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우리 가족은 몰몬경을 읽고 있어요. 가끔 우리는 역할극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새로운 단어들과 새로운 것들을 매일 배워요. 그렇게 할 때 저는 성찬식과 초등학교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더

가까워져요.

**아마론 아이, 7세,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몰몬경을 처음 소개해 준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몰몬경 읽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모사이야서에서 베냐민 왕이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이야기예요. 저도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재니스 에스, 10세, 필리핀 일로일로**

# 우리들 이야기



“첫번째 시현”, 알라나 엘, 7세, 브라질 상파울루



마르코 지, 9세, 페루 리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침례받게 되어서 무척 기뻐요. 물몬경이  
참됨을 알기에 저는 물몬경을 매일 읽는  
걸 좋아해요. 물몬경을 읽으면, 저는  
동생들에게 더 책임감 있는 형과 오빠가  
되어요.

안드레이 엘, 10세, 필리핀 일로일로



하라다 케이, 8세, 일본 요코하마

# 룻은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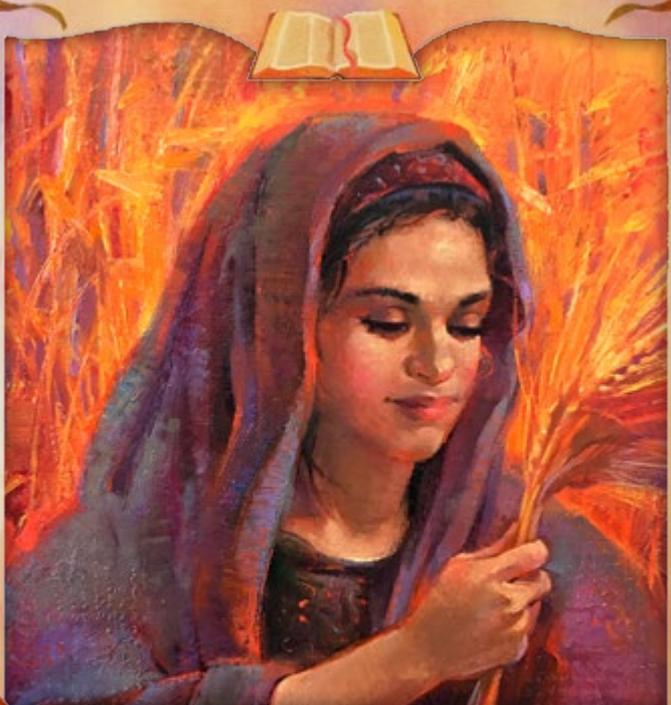
**나** 오미라는 여인이 두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살았어요.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은 매우 의리가 있었습니다. 룻은 남아서 나오미를 돌보기로 했어요.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근처에 있는 밭으로 갔어요. 밭 주인은 룻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전부더 들어 왔어요. 그는 룻에게 친절히 대했어요. 룻은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좋은 사이로 남았고, 나오미는 룻의 아들을 돌봐주었어요. 수년 후에, 예수님이 이 가족의 후손 중 한 명으로 태어나셨죠. 그 말은 룻이 예수님의 조상들 중 한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룻기 1~4장에서 룻에 대해 읽어 보세요.



“룻은 친절했고 사랑이 많았어요”, 카일리 큐, 8세, 미국 버지니아

상화: 달린 마쉬



룻

룻은 의리 있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 룻기 1장 16절을 외워 보세요.
- 의리가 있다는 말은 힘들 때에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의리를 지켰던 때에 관해 일기장에 써 보세요.
-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그 친구들에 대한 세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알아보세요.
- 저는 다음을 함으로써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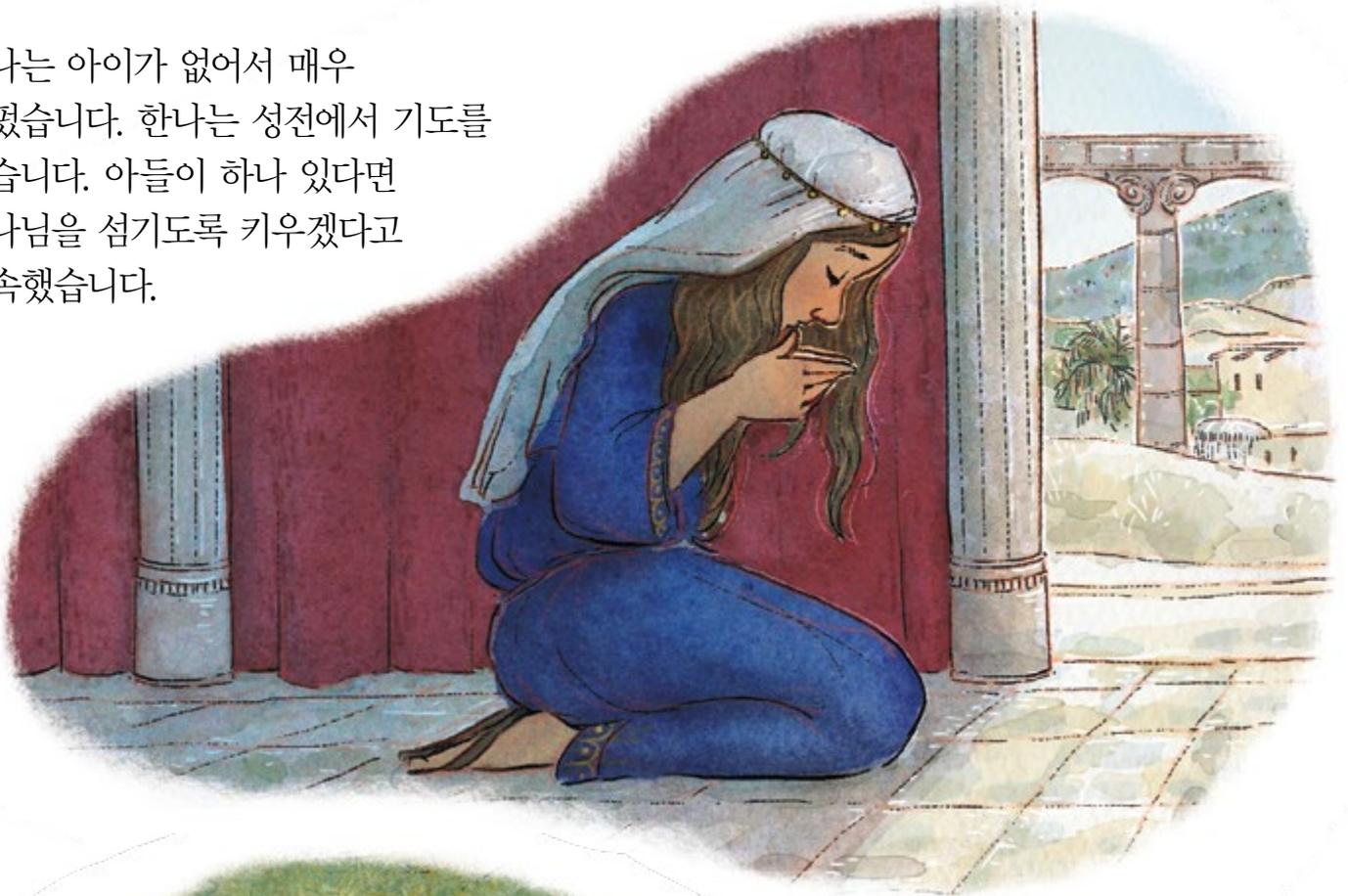


---

# 한나와 사무엘

김 웹 리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매우 슬펐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나와 남편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 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자,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전 제사장인 엘리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무엘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자신을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들렸을 때, 사무엘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계명을 따를 수 있어요! ■

사무엘상 1~3장에서 발췌.

#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에즈라 태프트 벤슨  
(1899~1994) 회장

## 몰몬경은 풍요로움을 줍니다.

[몰몬경]에는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일상생활에서 그와 같이 되고자 하며, 항상 그분 면전에 거하듯이 느끼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다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몰몬경을 통해 그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로 몰몬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몰몬경이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는 있으나, 그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몰몬경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몰몬경에 있는 힘은 여러분이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에 저항할 더 큰 힘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임수를 피하는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험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 힘을 찾을 것입니다. 경전은 “생명의 말씀”이라 불립니다.(교리와 성약 84:85) 몰몬경에 담겨 있는 진리보다 더 참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

가정이 더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되고, 영성과 의로움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러한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의미입니다. ...

십여 년 전에 저는 몰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이나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일생을 통해 몰몬경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위태롭게 되며 자신의 생애에서 영적 및 지적인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몰몬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쇠막대를 굳게 붙들고 있는 개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큼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선물을 가볍게 대함으로써 ...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 오히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여겨 그에 따르는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에서 발췌,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4~7쪽.



서부를 향해,  
데이비드 메이클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3천 명의 후기 성도 이주민들이 시몬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10대의 손수레 부대를 이루어 2,090킬로미터를 걸었다. 이 개척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담긴 가로 1미터 세로 1.5미터 크기의 손수레를 끌고 미국 대평원을 가로질러 갔다.



청년성인

### 단절된 느낌이 드는가?

우리는 어수선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 시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추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48

청소년

어려운 질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가? 여기 여러분을 도울 방법이 있다.

50

성찬식

말씀을 잘 하기 위한 7가지 조언

56

어린이

물문경 독서 모임에 참여하세요!

73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6